민족대단합과 통일을 불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불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머 리 글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른다.

반만년 유구한 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태양, 만고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0돐 년륜이 빛나게 아로새겨지고있다.

주체111(2022)년의 태양절을 뜻깊게 맞는 력사의 이 시각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오시며 태양과도 같은 밝은 빛과 뜨거운 정으로 우리 겨레를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삼가 우러른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탄생 80돐을 맞으시던 주체81(1992)년 4월의 그날 공화국정부에서 차린 연회에서 연설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하신 음성이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오늘 한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입니다. 조국이 해방된지 반세기가 가까운 오늘까지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불행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자신의 맹세이다. 하늘처럼 높은 이 뜻에 만고절세위인의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세계, 철석의 통일의지가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의 첫 시기부터 수십년세월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생애의 마지막년대인 1990년대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욱 완강히, 더 정력적으로 조국통일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위대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시며 범민족대회와 같은 전 민족적인 통일대화마당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라는 전민족통일련합체를 결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겨레에게 불멸의 대강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안겨주시여 조국통일위업을 명실공히 전 민족적인 위업으로 승화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시여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략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그들가운데는 수십년세월 반공의 탁류속에서 헤매다가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련북통일애국의 장거를 단행한 남조선정계와 군부의 거물급인물들과 이름있는 언론인, 기업가, 종교인들도 있으며 통일의 길에 자욱을 남긴 애국인사들의 유가족들도 있다.

어찌 그들뿐이랴.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외국의 수많은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도 만나시여 그들을 조선통일의 지지자, 동정자로 만들어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 세계정치의 대원로, 절세의 위인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출신과 소속이 어떠하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구름처럼 모여온 각이한 인생행로와 경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로 불러일으키시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어찌 한두권의 책에 다 담을수 있으랴!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걸출한 모습에서 우리 겨레와 세상사람들은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뵈웠고 통일에로 부르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서 민족의 자주적운명을 실은 통일의 기관차가 울리는 력사의 기적소리를 들었으며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손길에서 민족대단합의 거대한 힘이 솟구쳐오르는 장엄한 화폭을 새겨안았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쌓아올리신 조국통일령도업적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 민족적투쟁에서 영원불멸할 초석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년대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만나시여 민족대단합의 진로와 방략을 가르쳐주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며 조국통일운동사에 아로새기신 불멸의 업적의 일부를 담은 이 도서가 통일로 향한 온 겨레의 거족적투쟁을 더 힘차게 고무추동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차　　례

제 1 장
온 겨레를 민족대단합의 기치아래

제 2 장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제 3 장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려

제 4 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주석님은 영원히 온 겨레와 함께

제 1 장

온 겨레를 민족대단합의 기치 아래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45년의 년륜을 새기며 흐르고흘러 1990년대의 새벽문이 열리였다.

그 기나긴 세월속에 우리 민족이 당한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수 있으랴.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이러한 심장의 웨침이 조선사람모두의 가슴속에서 터쳐올랐다.

1990년대에 이르러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조국통일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은 더욱 힘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에서는 가혹한 파쑈적탄압을 뚫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통일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특히 북과 남사이에 장벽을 마스고 자유로운 접촉과 래왕을 실현하려는 기운이 고조되고있었다.

1989년에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통일념원을 안고 전민련고문인 문익환목사와 전대협대표인 림수경학생이 사선을 헤치고 평양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공화국의 인민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함으로써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우리 민족의 확고한 통

일의지를 내외에 시위하였다.

이러한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79(1990)년 신년사에서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의 분렬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자주화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력사의 비극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위업이 명실공히 전민족적위업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온 민족의 통일념원과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북과 남사이에 장벽을 마스고 자유래왕을 실현하며 북과 남이 서로 전면개방할것을 주장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북과 남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협상을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시였다.

1990년대의 문이 열리는 새해의 첫아침에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겨레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이렇듯 앙양된 분위기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시여 1990년대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마련,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실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발전,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발전,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개방침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그 실현을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조국통일5개방침을 밝히시는 시정연설에서 1990년대를 력사적인 조국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호소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범민족대회추진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범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이미 1980년대말부터 시작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일념이 깃든 민족대단합리념에 깊은 감명을 받아온 남조선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표적인물들은 1988년 8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

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범민족대회소집운동을 벌리였다. 이 추진본부에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의 련합조직들인 민주통일민중운동련합(민통련)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20여개의 단체들이 망라되였다.

뒤이어 일본과 아메리카주, 유럽지역에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추진본부들이 나왔다.

범민족대회를 열기 위한 준비사업이 이처럼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1989년 7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3 000여명의 해외동포들과 7 000여명의 공화국인민들의 참가하에 평양에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서는 력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남측과의 합의를 거쳐 북과 남, 해외 3자의 범민족대회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범민족대회가 전 민족대단결의 력사적인 계기로 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 온 겨레의 높아가는 통일열의에 의하여 분렬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범민족대회준비는 착실히 추진되여갔다.

1990년 8월에 이르러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대표가 사선을 헤치고 평양에 도착하고 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림민식사무총장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대표단, 범민족대회 유럽추진본부 정규명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재유럽동포대표단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대표들과 대표단성원들이 평양에 왔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속에서 민족대단합의 기운과 조국통일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8월 10일에는 평양에서 쑥섬혁명사적지준공과 통일전선탑제막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북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결속시켜 미국과 그 주구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한 민족의 대회합인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기념하는 쑥섬혁명사적지준공과 통일전선탑제막은 범민족대회를 맞이하는 민족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또한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표창하는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여 조국통일투쟁에 크게 기여한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수여되였다. 한편 평양에서는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이름에 담은 통일거리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었다.

8.15를 맞으며 이처럼 민족의 통일열망이 말그대로 활화산

처럼 분출하는 속에서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사들은 백두산정에 올라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 출정식을 가지고 판문점을 향해 출발하였다.

백두산정에서의 이 출정식에 서부도이췰란드(당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도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참가하여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드디여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온 겨레의 크나큰 관심속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과 서울에서 막을 올리게 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의정으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에 이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범민족대회 결의문과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등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범민족대회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대회가 사상과 리념,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내외에 과시하고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 겨레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마련,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의 실현, 련방제통일의 실현, 통일대화의 적극적인 참가, 자주통일을 위한 련대공동투쟁, 통일애국세력련합

의 확대 등 6가지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범민족대회기간 평양과 판문점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연구토론회, 평양 신미리애국렬사릉과 광주 망월동묘역의 흙을 합토하는 합토제와 기념식수, 통일문화축제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90년대의 첫해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범민족대회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방도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견해의 일치를 본 3자련대의 마당, 의의깊은 통일협상마당이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열렬한 지향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겨레의 통일열기는 더욱 세차게 분출되였다.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함성으로 진감시킨 범민족대회가 있은지 며칠후인 주체79(1990)년 8월 18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측추진본부 및 해외추진본부 대표들과 북아메리카동포대표단, 재유럽동포대표단, 재쏘동포대표단(당시), 재중동포대표단, 재일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어버이를 몸가까이 만나뵙게 된

범민족대회 대표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만면에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대표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나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오늘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조국을 방문하여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들입니다.》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

너무도 과분한 치하와 값높은 평가가 담긴 그이의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참석한 대표들모두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림민식사무총장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1960년대말부터 고향을 떠나 혈육 한점 없고 아무런 생활상터전도 없는 이국에서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타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불우한 나날들과 조국통일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1980년대에 해외교포운동조직인 《한민련》에 가입하여 통일운동에 몸을 담그었지만

똑바른 목표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받아안고 환성을 올리며 그이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가 담겨진 이 통일방안을 조국통일운동의 정로를 밝혀준 교과서로 삼고 활동하던 가슴벅찬 나날들도 긍지높이 돌이켜졌다.

그 나날 그는 훌륭한 민족통일방안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하루빨리 만나뵙고 해외통일운동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으며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할데 대한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범민족대회 준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늘 이렇게 그처럼 바라마지 않던 소원을 풀게 된것만도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인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비롯한 여러 해외동포대표들을 조국통일운동에 헌신분투한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주시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무엇이라 표현할수 있으랴.

이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해외동포대표들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1990년대의 첫해에 열린 이번 범민족대회는 1948년에 있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이였다고

하시면서 대회가 거둔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나라가 분렬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범민족대회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그 성과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해외동포대표들은 조국통일운동발전에 적으나마 기여하였다는 긍지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범민족대회에서 일치하게 결의한대로 우리는 1990년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분렬은 북과 남, 해외에 살고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있을뿐 아니라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가로막고있는 근본장애로 되고있다고, 우리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절감하게 하는 그이의 절절하고도 확고부동한 통일의지가 흘러넘치는 교시는 대표들의 가슴속에 깊이 흘러들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물론 어려운 투쟁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이 쉽사리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수는 없다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범민족대회준비과정에 감행된 분렬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그 실례로 드

시였다.

사실 범민족대회가 마련되기까지의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소집하는데 대하여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열렬히 지지해나섰으나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분렬주의자들은 대회를 파탄시키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였다. 당시 남조선당국자들은 범민족대회소집날자가 다가오자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기간으로 한다는 《특별발표》를 하고 《방북신청자접수》와 《명단교환》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그들은 6만명의 《방북신청자》를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명단을 북측에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으로 올것을 신청한 남측대표들을 한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북에서 이미 초청한바도 있고 《민족대교류》기간에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밝힌 남조선의 한 민주인사의 북행길도 가로막아나섰다. 범민족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남조선당국은 《자유총련맹》을 비롯한 반통일극우보수단체들을 대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회를 파탄시킬 흉심을 드러냈으며 판문점에서 진행하게 되여있는 예비접촉에 참가하려는 남측추진본부일행의 북행길을 가로막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범민족대회가 진행되던 날인 8월 15일에는 수많은 폭

압무력을 내몰아 수백여명을 체포해가는 파쑈적망동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돌이켜보며 림민식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여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반통일분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숙망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이 자리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두다 조선의 참된 애국자, 조국통일의 투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주시였다.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민족애가 맥박치고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리념으로 일관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재미동포 최정렬녀사와 범민족대회 유럽추진본부 정규명대표, 일본추진본부 곽동의위원장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들은 가장 투철한 애국애족의 자주적립장에서 출발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자기의 심장깊이 새기였다.

참으로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연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있는 모든 동포들이 조선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참다운 통일애

범 민 족 대 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내외의 통일애국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통일대축전.

199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는 민족분렬 45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과 남측추진본부의 위임을 받은 남측대표의 참가하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력사적인 제1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였다.

제1차 범민족대회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분자들의 《대화창구일원화》를 비롯한 반동적인 분렬로선에 첫 타격을 가한 거족적정치투쟁이였으며 80년대의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90년대에로 확고히 이어준 통일축전이였다.

범민족대회들은 비록 반통일분자들의 집요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예정된 장소들에서 공동개최하지 못하고 판문점과 서울, 도꾜 등지에서 분산개최되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북, 남, 해외가 합의한 공동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3자의 의지를 담은 공동문건들을 채택하였다.

범민족대회는 조국해방 50돐을 맞는 1995년 8.15를 계기로 보다

국의 길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였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누구라 할것없이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여 거족적진군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 겨레에게 가르쳐주고있다.

큰 민족통일대축전행사로 진행되였으며 10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된 1999년 8.15에는 북, 남, 해외의 각계각층 모든 통일애국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3자련합을 완벽하게 이룬 거족적통일행사로 진행되였다.

제1차 범민족대회때부터 수차에 걸쳐 전체 해내외동포대표들이 진행한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들은 민족의 통일열기를 뜨겁게 돋구어주었다.

특히 제3차 범민족대회에서 정치협상회의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안을 범민련의 통일방도로 확정발표함으로써 겨레의 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9년에 진행된 범민족통일대축전에서는 전민족대단결결의대회 결의문과 판문점 3자련합대회 범민족선언, 99범민족회의 결정서를 통하여 조국통일3대헌장을 범민련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력량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려는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가 다시금 힘있게 과시되였다. 범민족대회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한 통일로선, 통일운동의 정당성과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였다.

민족대단결의 진로를 밝혀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제1차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날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림으로써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1990년 10월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15만석의 경기장 좌석이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으며 며칠후에는 서울 여의도의 잠실경기장에서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열리였다.

북과 남의 축구선수들은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경기장을 누비였으며 관중들도 《조국통일》을 목청껏 웨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또한 평양에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동포음악가 윤이상의 발기로 공화국의 음악예술인들과 대양과 대륙을 넘어 달려온 해외동포예술인,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들어온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참가하에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해 12월에는 서울에서도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가 평양민족음악단과 남측전통음악단의 합동공연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대결과 분렬의 얼음장을 녹이며 뜨겁게 분출된 이러한 민족적단합의 기운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여온 반공대결정책이 파산되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정세흐름속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하여 제1차 범민족대회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의 련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내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북과 남, 해외측대표들이 참가한 3자실무회담이 열리고 범민련이 결성되였다.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민족의 통일운동은 한층 고양되였으며 그후 해마다 8.15를 맞으며 온 민족의 관심과 기대속에 범민족대회들이 진행되게 되였다.

제2차 범민족대회준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인 주체80(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해에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8.15를 계기로 제2차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된다고, 우리는 이번에 예정된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서두를 떼시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애국적이며 거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 략칭 범민련이라고 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의 결의에 따라 1990년 11월 20일에 결성되였다.

범민련은 전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과 남이 합의하여 온 세상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지침으로 삼는다. 범민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지하고 자기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로 구성하고 민주주의원칙 및 북과 남, 해외 3자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여기에 참가한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과 권리, 의무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

범민련에는 최고의결기구로 조국통일범민족대회와 그를 대신하는 북과 남, 해외중앙위원련석회의 그리고 범민련 공동의장단, 공동사무국 등이 있다. 범민련은 지역조직으로서 북과 남, 해외에 각각 지역본부를 두고 해외본부밑에는 일본, 미국, 카나다, 유럽, 중국, 오스트랄리아 등에 지역지부를 두고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1991년 1월 25일에, 남측본부는 1995년 2월 25일에, 해외본부는 1990년 12월 16일에 결성되였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일본 도꾜에 있다.

일군들은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던 1년전의 나날들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번 범민족대회행사를 잘 치르어나갈 각오와 결심을 가다듬었다.

그들의 모습을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중요성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로 하여 조선민족이 겪고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될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도 완전히 실현할수 없게 될것이다.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

여야 하며 그러자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입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이라고,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모두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지닌 조선민족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는듯 방안에는 한동안 정숙이 깃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이야말로 민족대단결의 기초라는 깊은 뜻이 담긴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민족은 비록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기마련이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진정한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감정인것이다.

일군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초로 되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대하여 그리고 참다운 민족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가르치심에 몹시 흥분되였다.

추억깊은 어조로 민족적단합을 위한 력사적로정에 대해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민족적단합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통일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최근에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상당한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대해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온 겨레의 불같은 통일열망에 떠받들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었다.

1991년만 놓고보아도 그해 5월 일본에서 진행된 국제예술축전에 북남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아리랑》합동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온 조선민족의 통일념원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체육분야에서도 북과 남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유일팀을 뭇고 참가하여 녀자단체전에서 강팀들을 물리치고 1위를 하는 등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6월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뽀르뚜갈에서 진행된 제6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도 북과 남은 유일팀을 무어 참가하여 혁혁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슬기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전 기간 수백명의 내외기자들이 유일팀선수들을 에워싸고 취재경쟁을 벌렸으며 일본과 뽀르뚜갈의 신문, TV방송들은 《통일코리아 첫 등장—91세계탁구개막, 춤추는 코리아통일기, 북남최상급의 쾌승》, 《게양되는 통일기, 아리랑대합창》, 《이 우승을 민족통일에로》, 《통일코리아는 세계 1》, 《제일 큰 파문을 일으킨 코리아팀》이라고 유일팀의 경기와 동포들의 환영소식을 크게 보도하여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남사이에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그 나날들에 소리높이 울리던 겨레의 통

일합성이 다시금 들려왔고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서로서로 얼싸안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 민족의 선수들을 응원하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짝이 되여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다.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와 한짝이 되여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다.

생각해볼수록 그이의 이 교시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가르치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고,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민족과 계급, 계층의 호상관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실로 자자구구 정의와 진리로 관통된 통일애국의 원리, 민족대단결의 원리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정에 넘친 어조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사이에 접촉과 래왕을 많이 하고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 민족적인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동포들의 조직적인 련합을 실현할데 대한 현실적인 방도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일군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으며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에 젖어있는 일군들에게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것이며 우리나라는 7 000만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것입니다.》라고 확

신성있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는 두려울것도 부러울것도 없다고,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게 될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것이라고, 조국이 통일된 다음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의 공동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념원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청년학생들과 그 조직들이 망라된 전 민족적청년학생련합체. 략칭 범청학련이라고 한다. 1992년 8월 15일에 결성되였다.

범청학련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과 남이 합의하여 온 세상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침으로 삼는다. 범청학련은 민주주의원칙 및 북과 남,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여기에 망라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청년학생조직들은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동의 의무를 가진다.

범청학련은 중앙조직과 공동사무국,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여있다. 범청학련의 중앙조직으로는 범청학련 총회와 중앙위원회, 공동의장단이 있다. 범청학련은 지역조직으로서 북과 남, 해외에 각각 지역본부를 두고 해외본부밑에는 중국, 일본, 미국, 카나다, 유럽 등지에 지부를 두고있다. 해외본부는 일본 도꾜에 있다.

업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통일국가의 래일을 환히 그려주시였다.

통일국가의 위용을 세상만방에 떨치게 될 우리 조국!

생각만 해보아도 크나큰 환희와 긍지로 가슴이 벅차올랐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국가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 일군들은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범민련 북측본부 성원들을 만나시여 하신 이날의 담화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민족대단결의 기초와 원칙, 그 실현을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그로부터 며칠후인 8월 15일에 개최된 제2차 범민족대회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을 다시한번 분출시키고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더욱 공고히 한 통일행사로 성과리에 진행될수 있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시며

조국해방 47돐을 맞이하는 1992년 8월 15일 판문점의 통일각에서 제3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원래 제3차 범민족대회는 그해 4월초 일본 도꾜에서 있은 범민련 제1차 공동의장단회의합의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여있었으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판문점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8월 9일 백두산에서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을 거행한 북과 해외의 범민련 및 청년학생대표들은 12일에는 평양에서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범민련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와 범청학련결성을 위한 북남해외동포청년학생련석회의를, 14일에는 《보안법》철폐와 장기수 및 통일애국인사석방을 위한 범민족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범민족대회에서는 기본보고를 청취토의한데 이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3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과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남당국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또한 제2차 북남, 해외동포청년학생 통일대축전 및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결성식을 진행하고 범청학련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한편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와 전대협은 8월 12일과 14일에 서울대학교에서 범민족대회 개막식과 개막제를 가지였으며 15일에는 판문점에서 있은 대회와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범민족대회관련행사들을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제3차 범민족대회에서 터져오른 통일함성의 메아리가 삼천리 강토에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던 주체81(1992)년 8월 19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3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들을 만나시여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과 흥분으로 상기된 여러 해외동포들의 모습을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제3차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범민족대회는 비록 남측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인민은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는 비록 령토는

크지 않지만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인구도 7 000만명이나 된다고,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통일만 되면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인차 세계선진국대렬에 들어설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락관이 차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그 자리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해외동포들은 크나큰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 그이를 우러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공화국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기식으로 풀어온데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어가며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최근에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기때문이라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해외동포대표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그 어떤 정치풍파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나아가고있는 근본비결이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온데 있음을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하고 민족자주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통일을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고나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주옥같은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온 전 행정에서 언제나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온데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그 길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데 대하여, 해방후에도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신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이렇게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들을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

현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나는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글도 많이 써내고 연설도 많이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바쳐오신 로고와 헌신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깊은 회억의 빛이 어리였고 절절한 음성은 해외동포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민족의 대단결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정녕 민족대단결을 위해 바쳐진 성스럽고 빛나는 한평생이였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족의 완전한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라의 분렬이 지속되고있는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분렬주의적책동, 파쑈적폭압책동과 관련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는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주장하지만 남조선괴뢰들은 예속과 파쑈, 분렬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립과 투쟁은 결국 애국자와 매국자, 민주력량과 파쑈세력, 통일력량과 분렬주의세력사이의 대립과 투쟁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립과 투쟁의 본질을 대번에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해외동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해방후부터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대립과 투쟁은 애국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매국과 파쑈, 분렬을 추구하는 세력간의 대립과 투쟁의 련속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북과 남에 펼쳐진 현실은 누가 진실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고 누가 분렬을 추구하며 매국의 길로 나가고있는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제3차 범민족대회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한것도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적탄압책동에 의해서였다. 원래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여있었던 제3차 범민족대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판문점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수만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참가를 위해 북으로 오려는 남측대표들을 총칼로 탄압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는 아무런 통일방안도 내놓지 못하고있으며 우리가 내놓은 련방제통일방안을 찬성하지도 않고있다고, 남조선당국자가 다른 나라들에 자주 돌아다니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회담이나 할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굳게 단결하기만 하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

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사실 남조선에서 예속과 파쑈, 분렬을 추구하는 세력은 소수 집권층과 일부 군부계층 그리고 일부 매판자본가들뿐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낟알을 채로 쳐서 골라내듯이 남조선에서 통일력량과 분렬세력을 갈라놓고 통일력량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동포대표들에게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사이에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며 전 민족적인 회의 같은것을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전 민족적인 회의를 북남련석회의형식으로 해도 좋고 각계각층 련합회의나 정치협상회의형식으로 해도 좋다고, 남북련석회의를 한지도 이제는 40년이 지난것만큼 련석회의를 다시 조직하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범민족대회도 계속 조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범민족대회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대회로 되자면 대회에 북과 해외대표들뿐 아니라 남측대표들도 참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범민족대회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의의와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북과 해외대표들뿐 아니라 남측대표들까지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하여야 그 대회가 명실공히 범민족대회로 될것이라고, 그런것만큼 범민족대회는 반드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다 참가하는 원칙에서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를 끝내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소속과 당파를 가리지 말고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고나서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믿는다는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해외동포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겠다는 자기들의 결심을 말씀올렸다.

민족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해외동포대표들의 가슴마다에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두리에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굳게 뭉친다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희망과 신심에 차넘쳤으며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나갈 신념의 맹세가 불타고있었다.

아메리카주지역 동포들을 만나주시여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그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따뜻이 품어안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은 아메리카주지역의 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미치였다.

주체79(1990)년 4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조국통일북아메리카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선우학원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미조선인축하단과 재카나다조선인축하대표인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 카나다본부 회장 김정식을 만나주시였다.

4월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조국에 온 아메리카지역의 해외동포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가운데 나이가 70고개에 들어선분들도 있고 조국을 위해 오래 사업한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해외에서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사업상문제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 토론하였기때문에 오늘은 오찬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그들을 오찬회장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이번에 재미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온 녀사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를 많이 가져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는 미국보다 일본에 더 많다고, 녀사가 가져온 박달동무가 체포되여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그가 감옥에서 쓴 혈서 같은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사실들을 고증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받아안은 재미조선인축하단의 최정렬녀사는 감사하기 그지없었다. 그이께서 자기가 가져온 단편적인 사적자료들을 그렇듯 높이 평가하실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 보천보전투의 목격자로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혁명투쟁과 인연을 맺게 된 때로부터 항일빨찌산투쟁과 관련한 사료라면 크든작든 모아오는것을 백성의 도리로 여겨온 그였다. 그런데 그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의 근본을 지키는 중대한 사업에 기여하게 될줄을 미처 몰랐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늘 보천보전투 이야기부터 펼쳐놓는다고 하여 《보천보할머니》로 불리워온 녀사는 자기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긍지로운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듯싶었다.

최정렬녀사가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해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일행에게 음식을 권하시며 언감자음식과 들쭉가공품, 인삼의 좋은 점과 약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오찬회장에 앉은 해외동포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해박한 식견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잠시후 아메리카지역의 해외동포지인들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김성락목사가 지난해에 사망하였으면 86살에 돌아갔다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본것이 1982년이라고, 그때 그의 나이가 79살이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해주시였다.

선우학원위원장은 김성락목사를 추억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숙연함을 금할수 없었다.

김성락목사로 말하면 해방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그리스도교목사로서 재미동포들의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고 해방후에 남조선에 돌아왔다가 환멸을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으로 통일운동에 참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인생말년에 참다운 조국을 찾아 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였다.

김성락목사는 애국지사라고 불러주시며 그가 평생 해오던 신자의 법도를 지켜 식전기도도 할수 있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도량과 포옹력에 감복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었다.

그러한 그를 잊지 않으시고 8년세월이 흐른 뒤에도 김성락목사를 추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교시는 선우학원뿐 아니라 오찬회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계속하시여 미국에서 살고있는 손정도목사의 맏딸과 림창영선생에 대해서도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덕신선생은 불치의 병으로 돌아갔다고 하시며 그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조국에 왔던것같다고, 그가 조국에 온지 한 3년 되나마나한데 그렇게 빨리 병을 만날수 없다고, 그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병을 걸려가지고 조국에 온것같다고 하시였다.

우리 의사들이 그의 병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더라면 더 살수 있게 하였겠는데 좀 늦게야 발견하였다고, 참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뇌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미주지역에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있습니다. 해방전에는 미국에서 사는 조선사람이 몇천명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조선사람들가운데는 해방후에 북반부에서 살다가 남반부로 나갔다가 거기서 살아가기 곤난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적지 않을것입니다.》

민족의 어버이의 숭고한 동포애가 뜨겁게 흘러넘치는

가르치심이였다. 제 나라, 제고장에서 살지 못하고 이역만리에 흩어져 민족적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있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짙게 어린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동포들의 눈굽은 찌릿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기때문에 잘 알겠지만 미국은 사람이 마음놓고 살수 없는 나라이라고,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이고 미국식민주주의와 자유가 좋다고 선전하지만 그것은 허튼소리이라고, 미국식민주주의와 자유는 얼마 안되는 자본가들을 위한것이지 돈이 없는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식으로 일떠세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데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선우학원위원장에게 시선을 보내시며 그가 쓴 책 《북의 동유럽변화에 대한 시각》을 읽어보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책에서 우리 나라는 절대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처럼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는데 잘 썼다고, 위원장선생이 함께 온 선생과 같이 《주체사상과 그리스도교》라는 책도 썼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앞으로 그런 책을 더 많이 써서 출판하는것이 좋겠다고 고무하여주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최근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에 대한 책을 많이 써내면 그런 책들이 남조선에 들어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해외동포들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기 위하여 별의별짓을 다하고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지게 되면 조국의 절반땅인 남녘땅을 영원히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분렬주의책동을 짓부셔버리고 후대들에게 하나가 된 삼천리강토를 안겨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배짱이 담겨있는 그이의 이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해외동포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동포들에게 우리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고 하시

며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밝히고 북과 남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와 군대를 각각 10만아래로 줄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다고, 우리는 북과 남에 있는 정치, 경제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설하되 련방국가는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국으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련방국가가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의 정치, 경제제도를 그대로 둬두면 남조선자본가들과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자본가들도 손해볼것이 없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이 지고있는 빚도 앞으로 련방국가가 서고 잘살게 되면 다 물어줄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미국에 매여 미국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하기때문이라고 그들의 사대굴종적인 정책에 대하여 발가놓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북과 남에 있는 정치, 경제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한다고 하여 그것을 두려워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중립정책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발전도상나라들과 그밖의 다른 나라들은 지지할것이라고, 지금 론의되고있는 동서도이췰란드의 통일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신 이날은 온 나라 인민들이 수령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고 휴식을 하고있는 날이였다.

하지만 자신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 아메리카주에서 찾아온 해외동포들에게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이날은 휴식일이 아니라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많은 날들중의 하루였다.

재도이췰란드 교포들과의 담화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 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찾아온 해외동포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모두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전야마다에 황금이삭이 물결치고 가을기운이 짙어가던 주체79(1990)년 9월 21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을 만나주시였다.

교포들이 미처 인사의 말씀을 올리기도 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였다.

《나는 오늘 조국을 방문한 선생들과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해외에서 살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절구절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교시를 받아안은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겠다고 인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시면서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으로 담화를 시작하시였다.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

의 공통된 지향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전체 조선민족이 바라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준다면 선조들과 후대들앞에, 민족과 력사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철석의 통일의지가 차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가슴이 쩌릿해왔다.

민족의 어버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한몸 다 바쳐나갈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지며 그들은 숙연한 감정으로 그이의 교시에 귀를 기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도이췰란드의 통일문제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하여서도 설명해주시였다.

여러분들도 알고있는것처럼 도이췰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그 전쟁에서 패한 전패국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도이췰란드가 다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의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련합군이 도이췰란드를 2개 국가로 갈

라놓았다.

도이췰란드와는 달리 우리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나라이며 조선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한 존엄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인것만큼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다. 더우기 오늘 전패국인 도이췰란드가 통일국가로 세계무대에 나서고있는 때에 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한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할 리유란 있을수 없다.

이렇게 우리 나라와 도이췰란드의 통일문제를 비교하시며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 역시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지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고있습니다. 남조선통치배들이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목적은 결국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자는것입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도이췰란드교포들에게 북남고위급회담의 진척정형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였다.

며칠전인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측단장인 정무원총리(당시)는 회담에서 세가지 의제를 제기하였었다. 첫째 의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유엔에 북과 남이 제각기 들어가지 말고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가자는것이였고 둘째 의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정 그만둘수 없으면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그만두라는것이였으며 셋째 의제는 북을 방문하였다고 하여 감옥에 가두어넣은 민주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공화국이 회담에 내놓은 세가지 제안들이 당시의 북남관계에서 가장 절박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시를 이어가시였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을 분렬주의자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결하여 벌리는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자신들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은 북과 남이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하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리시고나서 자신께서 1972년에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되는 근본원칙을 내놓으시고 합의를 이끌어내시던 때의 일을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남측대표에게 조국통일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둘째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지금 당신들이 우리 민족을 북의 공산주의극과 남의 자본주의극으로 갈라놓고 이 두 극이 서로 량립될수 없다고 하는데 한민족이 어떻게 두개의 극으로 될수 있는가, 세상을 살펴보면 한민족국가안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서로 다른 사상과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오직 당신들만이 한민족이 서로 다른 사상을 지향한다고 하여 둘로 갈라져 살아야 한다고 한다, 당신들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민족이 두개의 극으로 될것이 아니라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

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은 7.4북남공동성명으로 세상에 발표되였다. 그런데 남조선《국무총리》라는자는 이 성명이 나간 다음날에 그것을 뒤집어엎는 발언을 하였다.

이렇게 조국통일3대원칙의 합의과정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개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시종일관하게 조국통일이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련방제에 의한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았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우리가 내놓은 련방제조국통일방안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이라고, 다시말하여 이것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통일적인 하나의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일 우리가 남조선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면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실현할수 없을뿐 아니라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될것이라고,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 카나다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자본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조국이 통일되여도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외국자본을 다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는 절대로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련방국가의 운영방식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이 하나의 련방국가를 만들고 그 지도밑에 북조선은 북조선대로 살아나가고 남조선은 남조선대로 살아나가는 식으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게 하면 온 민족이 다같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통일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는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의 전모가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그려지는것같았다. 그들모두가 높은 령마루에 올라 통일조국의 앞날을 제눈으로 직접 보는것만 같은 환희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은 5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우리 민족은 총명하고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가진 민족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우리 조국이 통일만 되면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의 모든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로,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일떠세우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그 전해인 1989년에 문익환목사를 만났을 때의 일도 회고하시였다.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천금같이 귀중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해외에 돌아가서도 자신들뿐 아니라 해외동포모두가 민족대단합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각오를 가다듬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교외의 신미리에 자리잡고 있는 애국렬사릉을 소개하시며 아마 조국통일을 위하여 남조선과 해외에서 남모르게 희생된 사람들도 많을것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민족과 조국앞에 내세워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한없이 숭고한 그이의 도덕의리심에 깊이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통일을 위한 길에서 설사 쓰러진다 하여도 대해같은 품에 안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가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결심이 북받쳐오르는것이였다.

재도이췰란드교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나감으로써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마음속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통일에 이바지하는 음악가로 내세워주시여

제1차 범민족대회가 진행된 후인 1990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는 해외동포음악가 윤이상의 발기로 공화국의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참가하에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열리였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음악회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 5 000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한피줄을 이어온 조선민족의 자랑과 긍지, 자부심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들과 계몽기가요, 민요종목들이 올랐다.

범민족통일음악회를 통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예술인들은 우리의 조국과 민족, 음악은 하나이며 온 겨레의 통일열망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범민족통일음악회가 끝난 다음날인 주체79(1990)년 10월 24일 해외동포음악가 윤이상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윤이상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는 윤이상선생과 이렇게 다시 만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내가 선생이 작곡한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1987년 10월초에 관람하고 선생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는 오늘 처음 만나는것같다고 다정히 이야기하시였다.

윤이상의 눈앞에는 3년전 교성곡을 완성해가지고 조국으로 달려왔던 나날들이 어제런듯 방불하게 안겨왔다.

그때 그는 서울올림픽에 음악가로 협조해줄데 대한 남조선당국의 청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 량심의 곡, 민족에게 바치는 곡을 창작하는데 달라붙었다. 그것이 바로 60여일간의 고심어린 사색끝에 완성한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였다.

교성곡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망과 그것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되여있었다.

수십년동안 해외에서 창작한 모든 음악작품들의 첫 연주를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이역땅에서 했던 그는 자신의 조국애와 민족애가 집대성되여있는 이 새 교성곡만은 꼭 조국에서 첫

공연을 하고싶었다. 하여 그는 작품이 완성되자 서둘러 서부도이췰란드를 떠났다.

그가 교성곡을 조국에 가지고 온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1987년 10월 5일 만수대예술극장에 나오시여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의 첫 공연을 친히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성곡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노래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윤이상을 만나주신 석상에서도 작품을 아주 잘 썼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면서 새로운 형식의 교성곡 창작을 위한 탐구에 깃든 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윤이상선생이 이번에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준비하여 진행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평양에서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는 우리 조국력사에 뜻깊은 장을 기록한 민족의 축전이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는 선생이 건강이 좋지 못한데도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발기하고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일음악회가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힘쓴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선생은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성과를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받아안은 윤이상의 눈굽에

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였다. 그것은 수난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불우한 인간이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였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은 류랑민의 설음속에 흘러온 나날이였다.

윤이상은 어려서부터 뛰여난 음악적재능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희망을 꽃피울 청운의 꿈을 안고 고루한 봉건의 구속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와 방황하였다. 일제의 민족적멸시와 수모속에 흘러간 이 나날 그의 가슴에 삶의 희망을 안겨준것은 오로지 음악이였다.

8.15해방후 남조선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전후에 서유럽으로 간 그는 궁핍속에서도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음악계에서 드디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창작초기 그는 예술지상주의관념에서 순수 예술성만을 추구해왔다. 그러다보니 분렬된 조국의 현실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보다도 고대의 력사와 문화, 민속전통 같은 주제의 음악창작에만 몰두하고있었다. 그러던 윤이상은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이른바 《동부베를린사건》으로 1967년 서울에 랍치되여가 2년간 악착한 고문과 옥중고초를 당하였다. 그 나날 남조선사회의 비인간적, 반민족적실체를 통감한 그는 드디여 예술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주제로 하는 음악작품창작을 벌려나가게 되였다.

윤이상의 지난날을 더듬어보시는듯 련민의 정을 안으시고 그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우리는 선생이 범민족통일음악회를 발기하고 남조선에서 14명이나 되는 서울전통음악가들이 평양에 들어오도록 한 그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8월에 진행된 범민족대회에 단 한명의 남조선대표도 참가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고 준절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선생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여 진행한 범민족통일음악회에는 기자들까지 합쳐 남조선에서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에 와서 참가하였다고, 선생은 범민족통일음악회를 통하여 북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악예술전통과 유산을 없애고있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기만선전을 깨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윤이상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참으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큰 은정이고 평가였다.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도 떨치였고 여러 차례의 음악축전들에서 최고상과 명예칭호들도 받았지만 이 모든것을 다 합친다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값높은 평가와 믿음에는 정녕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감격에 젖어있는 그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까지 북에서 민족의 고유

한 전통과 풍습, 문화유산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허위선전을 벌리면서 남과 북의 《동질성회복》이요 뭐요 하며 떠들어왔다고, 그런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했던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북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악예술전통과 유산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우리 인민의 현대적생활감정에 맞게 개화발전시키고있다는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의 문화가 마구 밀려들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오늘 민족문화가 어지러워지고 그 발전이 저애를 받고있다고 가슴아픈 어조로 이야기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려면 북과 남의 인민들이 자주 모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는 협력과 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에도 좋을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윤이상의 머리속에는 지난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가르치심을 받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주체68(1979)년 10월 11일 윤이상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다니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면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과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할 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조국통일5대방침과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그가 제기한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남동포회의소집제의를 매우 좋은 발기라고 하시며 전적으로 지지해주시였다.

주체71(1982)년 7월에 윤이상을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4북남공동성명의 발표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공화국이 제기한 북과 남의 경제합작문제에 대해서도 해설해주시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들을 심장에 새겨안고 윤이상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해왔던것이다.

사랑과 믿음속에 걸어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선생은 음악예술분야에서 북과 남, 해외의 여러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선생은 음악예술분야에서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를 리용하여 해내외동포들의 음악예술교류를 직접 조직할수 있고 선생이 직접 참가하지 못한다 해도 선생의 이름으로 해내외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앉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고 하시

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해 앞으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나는 선생이 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분에 넘치는 과분한 치하였다.

음악으로 조국통일에 이바지해나갈 결심을 품은 때로부터 윤이상은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1981년),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1987년)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겨레의 통일의지를 분출시키는데 기여해왔다.

또 북과 남, 해외의 음악가들이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일이 아직은 너무도 적은 그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또다시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윤이상은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북과 남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윤이상은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를 여러번이나 만나주시고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위해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하리라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이였다.

다음해인 1991년부터 윤이상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였으며 민족을 위한 음악작품창작과 함께 통일운동에 자기의 심혼을 다 바치였다.

참으로 한 해외동포음악가의 재능과 애국의 넋을 귀중히 여기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넓고 크나큰 품이 있었기에 윤이상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수 있었다.

해외동포축하단을 만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명절이 있어 우리 민족은 재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였고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삶을 빛내여나가고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해마다 4월이 오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해오고있다.

주체80(1991)년 4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이 땅우에 또다시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대지엔 아지랑이 피여올랐고 잠자던 나무가지들마다에선 새싹이 움터나며 생명의 강인함과 새로운 탄생의 기쁨을 알리였다.

이해의 4월 15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겨레의 마음은 더더욱 설레이였다. 공화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4월 15일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명절분위기로 들끓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들이 날마다 울려나오고있었다. 일본과 중국, 유럽, 아메리카 등 해외에 살고있는 각계층 동포들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을 다그쳤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4월 15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경축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벌리였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4월 15일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들이 련이어 조직되였으며 수많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이 평양으로 날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춤과 노래를 안고 세계5대륙의 예술인들이 화창한 4월의 평양, 주체의 성지로 찾아왔다.

우리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경모와 신뢰, 충정의 마음들이 평양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던 4월 14일이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하루 앞둔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해외동포축하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범민련 북아메리카본부 고문인 조국통일북아메리카협회 중앙상임위원장 선우학원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미조선인축하단,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최영희제1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중조선인축하단, 범민련 해외본부 중앙위원인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당시) 전금철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쏘조선인축하단, 범민련 카나다본부 전충림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재카나다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4.15경축 국제태권도련맹축하대표인 최홍희총재를 비롯한 여러 해외동포축하단의 동포들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들중에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 차례 만나뵈온 사람도 있었고 또 이날 처음으로 그이를 뵈옵게 되는 사람도 있었으나 누구나 할것없이 흥분과 격정으로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다.

만면에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양과 대륙을 건너 달려온 세계의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해외동포축하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9돐을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드리고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이 4.15를 경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축하단을 무어가지고 조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오늘 해외에서 온 여러 동포들과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한없이 뜨거운 인정미와 동포애가 흘러넘치는 그이의 말씀에 동포들은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을 한사람한사람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총련의장의 년세가 많은데 아직 정정하다고, 앞으로 20년은 더 앉아있을것같다고 다정히 이야기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총재를 바라보시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선생도 늙지 않았다고, 내가 몇해전에 만났을 때와 달라진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태권도를 하기때문에 건강한것같다고 교시하시였다.

한덕수의장과 최홍희총재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해외동포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에 목이 메여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을 축원하였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 혁명적락관주의에 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자신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늘 락천적으로 살며

싸웠다고 하시며 혁명적신념과 락관주의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헤쳐오시던 항일의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지만 자신께서는 비관하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어지러운 반사회주의광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는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주체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락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해외동포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고, 또한 우리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를 가지고 만경대혁명학원교사와 **김일성**종합대학 본청사를 지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는 항일혁명렬사들의 자녀들뿐 아니라 지난날 반일투쟁을 하던 민족주의자들과 독립군의 자녀들도 다 받도록 하였다, 독립군 총

사령이였던 량세봉의 아들도 만경대혁명학원에 받았다, 김구가 1948년에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러 평양에 와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는데 그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크게 감동되여 많은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였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회상하시였다.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자식들을 넓은 한품에 안으시여 민족대단합의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덕망이 낳은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해외동포들은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이췰란드는 서부도이췰란드가 동부도이췰란드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였지만 우리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통일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련방국가를 세워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통일방식입니다.》

통일은 련방제방식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천만번 정당한 가르치심이라는 생각이 해외동포들의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각이한 계

급, 계층과 정치세력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접수하고 그 실현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통일방안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를 창건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인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련방제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을 떠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당시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서로 갈라졌던 도이췰란드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된것을 기화로 아무런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는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부》에 의한 통일 다시말하여 《제도통일》론을 고집하면서 민족분렬영구화책동에 매여달리고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해외동포축하단 성원들의 모습을 일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조선사람모두가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은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50년동안 조국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으며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려운형도 그런 사람들가운데 한사람이라고, 일제시기에 독립운동자로서 일본의 총리대신을 만난 사람은 려운형밖에 없었다고, 그는 해방직후에 나한테 세번 왔다갔고 편지도 여러번 보내왔다고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은 해방직후에 자기의 두 딸을 나한테 맡겼다고, 지금 려운형의 딸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사업하고있다고 이야기해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련방제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그 본질로 하고있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는 서로 다른 두 제도우에 창설되는 하나의 민족과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통일국가로서 우리 나라의 전 령토와 전 민족을 포괄한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해외동포들의 눈앞에는 해방년의 만세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렬을 강요당한 그때로부터 끊어진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잇기 위해 벌려온 우리 민족의 피어린 투쟁사와 그 길에서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통일애국투사들의 장한 모습이 금시 보이는듯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신듯 절절한 음성으로 우리 세대에 나라가 분렬된것만큼 우리가

의 통일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한다.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이와 함께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며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책임지고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순간 그 자리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고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미래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하기에 그이께서는 언제나 조국통일문제로 마음쓰시며 고령에 이르신 시기까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기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것이 아닌가.

참으로 가슴뜨거운 가르치심에 동포들모두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사명감을 되새기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다시금 울리였다.

《조선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리고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하느님>을 믿건 <부처님>을 믿건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다같이 손잡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들에게 해외에서 온 여러분들이 지난날에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지만 앞으로도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련방제방식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조국인민들과 함께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들모두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성대한 연회도 베풀

어주시였다.

온갖 꽃 만발하게 피여나는 4월의 뜻깊은 이 봄날은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축하단 성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새겨안은 하루였으며 민족대단합과 통일애국의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은 날이였다.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며

1993년 3월, 자연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였지만 조선반도의 정세에서는 대결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있지도 않는 《핵의혹》설을 날조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렸다.

그해초 미국은 전해에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것을 공포하고 침략무력의 대기동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는 핵무기를 적재한 신형전투기들과 함선,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집결되고 미국본토와 괌도, 하와이,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에서 방대한 침략무력이 전쟁연습에 동원되였다.

또한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을 사촉하여 공

화국에 대한 《특별사찰》압력을 가하는 한편 이른바 《핵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 그 무슨 《제재》를 가할데 대한 부당한 결의까지 채택하게 하였으며 북조선의 군사시설을 타격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해나섰다. 이에 편승하여 남조선당국도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섬으로써 정세의 흐름을 불신과 대결의 극한점으로 몰아갔다.

삼천리강토와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는 열핵전쟁의 불구름이 짙게 떠돌고있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3월 8일에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에 들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전쟁전야의 조선반도정세를 긴장하게 주시하고있었다.

그러던 주체82(1993)년 3월 11일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재미교포일행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재미교포들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자신들을 친히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오늘 미국에서 온 선생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재미교포들은 정세가 매우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의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생들을 만나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나는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지만 선생들이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기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여 선생들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들을 이렇듯 높이 평가하시는 그이의 교시에 재미교포들은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중요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이야기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재미교포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기울여오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핵전쟁의 검은 불구름이 몰려오고있는 준엄한 시각에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재미교포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깊은 감동속에 잠겨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그전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를 만났을 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내놓았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조국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방법으로,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하자는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민족대단결입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야 자주의 원칙도 지킬수 있고 평화통일의 원칙도 더 잘 관철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민족대단결이다.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재미교포들의 심장을 격동과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며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이 방안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이라고 교시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빛나는 예지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재미교포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심장에 새겨안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우리는 공화국북반부를 자본주의화하는것도 반대한다고 하시며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기자고 한다고, 그러나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재미교포들은 련방제통일이야말

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칠 때 련방제에 의한 나라의 통일이 실현될수 있음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지금 북과 남의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르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외동포들속에도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될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재미교포들은 민족대단결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밝히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도 조

국해방의 기치아래 로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한 종교인들까지 묶어세웠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일대에 진출하여 무장투쟁을 벌릴 때 북부조선일대의 천도교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자신께서는 해방후에도 종교인들을 포섭하여 그들이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고, 강량욱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을 만나서는 《하느님》을 믿어도 서양의 《하느님》을 믿지 말고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였으며 불교인들을 만나서는 조선의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전에 재미교포인 김성락목사를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말해주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참으로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전 민족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명언중의 명언이였다.

재미교포들의 가슴속에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 세차게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당국자들과도 될수록 단결하자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올해신년사에서 그 누구든지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진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만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다고,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감격과 흥분에 넘쳐있는 재미교포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시를 이어가시였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자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포들사이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미교포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재미동포들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명철

하게 밝혀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교포들은 완전히 심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동포들속에서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3인1당》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여 분파싸움만 벌리고있던 민족주의자들을 깨우쳐주시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시였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재미교포들도 분파행동을 하지 말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이야기는 재미동포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미국땅에 100여만을 헤아리는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다고 하지만 각자의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가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의주장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동포들을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묶어세운다면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미

교포들이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한생토록 간직해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재미교포들의 가슴가슴은 흥분과 감격으로 높뛰였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흐르고있는 조선반도를 주시하고있는 시기에도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시려 민족대단결의 중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재미교포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민족의 령수, 조국통일의 구성을 모시고있기에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리라는 확신이 차고넘쳤다.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

1993년 3월에 이르러 조선반도정세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특별사찰》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들고나왔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3월 12일에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3월중순 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소집에 관한 공보가 발표되였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반도에로 집중되였다.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환경에서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가 취해지리라는것이 세계의 예상이였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그에 대처할 모의를 하고있었다.

하지만 4월 7일에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는 고압적인 정치적대응이나 단호한 군사적조치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되였다.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그리고 그 원칙과 구체적방도들이 명백하게 제시되여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긴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4월 6일에 친히 집필작성하신 민족대단합헌장이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민족대단결의 력사적경험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으며 공화국의 광폭정치의 리념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에게 민족대단합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찬란한 해빛으로 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된 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해외동포들이 앞을 다투어 조국방문을 요청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통일의 열망을 안고 조국에 오는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만나주시고 10대강령에 담겨진 민족

대단결사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들이 통일애국위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주체82(1993)년 4월 1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미국 윌리암 캐리대학 고려연구소 소장인 재미교포 조덕천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조덕천선생과 이렇게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선생은 지난 시기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껏 노력하여주기 바란다고 정답게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감격에 휩싸인 조덕천은 주석님께서 통일된 련방국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자신께서는 련방국가 대통령이 될것을 희망하지는 않지만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바라고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담화의 첫시작부터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는 통일문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그이의 심려가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현 단계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전 민족의 대단

결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는것밖에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전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하여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발표하였다고 이야기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조덕천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읽어볼 때의 흥분이 되살아남을 금할수 없었다.

하여 그는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아주 훌륭한 조국통일대강이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사의를 표하시고 이번에 발표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것이라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던 경위를 설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힘을 총동원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신것처럼 전민족대단결강령의 발표로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의 힘을 모아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 의도에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조덕천을 바라보시며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본사상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인식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할것없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에 기여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또한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문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데 대한 문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다 반영되여있습니다.》

참으로 민족대단결의 심오한 사상이 구절구절 담겨져있는 명철한 가르치심이였다.

조덕천은 일찌기 1970년대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해주시고 1980년대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

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오늘은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의 불멸의 대강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와 그 방도에 대하여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정무원총리의 보고에서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를 지향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태도를 밝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이라고 사리정연하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외세에 의존해서는 조국을 통일할수 없다고,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보아도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인것만큼 단합하면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다고, 그렇기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무서워하고있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려면 남조선에서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남조선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보고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군을 당장 철수시키기 어려우면 철수시킬 의지라도 표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조덕천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이의 명철한 가르치심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였다.

우리가 이번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는 남침하거나 남조선을 《적화》할 의사가 없으며 통일된 조선은 그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밝힌 조건에서 미국사람들도 대조선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되였다고 본다. 미국사람들가운데 옳은 정책을 내놓을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통일된 우리 나라가 중립국가로 되는것을 지지할것이다.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호의적인 립장을 가지고 회담하면 의견일치를 볼수 있을것이다. …

이어 그이께서는 문익환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익환목사는 조국통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선생이 문익환목사를 만나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눈물겨운 심정으로 지냈다는것과 늘 그

리워하였다는것을 전해주는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내가 문익환목사가 감옥에서 석방되여 매우 기뻐한다는것과 가까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 포옹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것이 유감이라고 하였다는것을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난 조덕천은 눈앞이 환히 트이는것을 느꼈다.

그는 몸가짐을 바로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말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올렸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남조선통일운동가들에게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전달하고 그것을 조국통일의 대강령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나는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기를 바란다고 그를 고무해주시였다.

조덕천에게 있어서 이날은 한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과 행복의 순간이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이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긴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재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일시적애로와 난관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시며

조선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살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위업에 한몸 다 바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손길은 이전 쏘련지역의 해외동포들에게도 잇닿아있다.

주체82(1993)년 6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독립국가협동체 조선통일촉진위원회(당시) 강일위원장과 그의 부인을 불러주시였다.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행운을 지니게 된 그들 부부는 감격에 설레이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럴수록 한해전인 1992년 10월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던 때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조국산천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강일위원장내외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온 세계가 국제정치의 대원로로 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이처럼 위대하신분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있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그이를 한번만이라도 만나뵙고싶은 마음속소망을 안고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정말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한달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으로 만나시는 강일위원장과 그의 부인을 마치 구면친구를 대하시듯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기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첫 순간 그들부부는 그이의 고결한 인품, 넓은 도량에 완전히 매혹되여 인사말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신듯 줄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강일위원장과 그의 부인에게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은 강일위원장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전 쏘련시기에 우즈베끼스딴공화국 건설관리국 기사장, 쏘련내각직속 중앙아시아농업 및 처녀지개간성 제1부상으로 30여년동안이나 일해온 그가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을 안고 통일운동에 나선것은 몇년전부터였다.

이 길지 않은 기간에 강일위원장은 해외동포들도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으로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애국사상과 령도에 고무되여 이전 쏘련지역에 널려살고있는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위업에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에서 적으나마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높은 평가의 말씀까지 받아안은 강일위원장은 그후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심혼을 바쳐왔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그이를 뵈옵게 되였으니 그들의 감격이 어찌 크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오늘 1년만에 동무들과 이렇게 다시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고, 동무들은 그동안 반동들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자신께서는 동무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사는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높이 평가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게 된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이렇게 과분한 치하의 교시까지 해주시니 강일위원장은 너무도 황송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잠시 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당시 조성되였던 국내외 정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쏘련을 와해시키고 붕괴에로 이끌어간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의 반동적본질과 그 후과에 대하여 까밝히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사회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로 출현하였던 쏘련이 해체되여 이미 자기의 존재를 마친 뒤였다.

70여년간 사회주의붉은기를 휘날리며 강국의 위용을 떨쳐온 쏘련을 파국속에 몰아넣고 붕괴시킨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죄행을 낱낱이 발가놓으시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이전 쏘련시기 30여년간 여러 직책에서 복무하여온 강일위원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 크레믈리에서 쏘련국기가 내리워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던 사회주의강국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비극적사태를 직접 체험한 그였다.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앞에서 좌절의 쓰라린 감정을 느끼며 강대한 쏘련을 무너뜨린 사회주의배신자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던 그때를 잊을수 없었다.

이러한 그로서는 쏘련붕괴의 근본원인과 교훈을 명철하게 밝

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지금 조국의 정세도 매우 긴장하다고 하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해나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사이의 대결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나서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결코 우리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라고, 우리는 적들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나갈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시고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발아래로 굽어보시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광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절세위인을 우러르며 강일위원장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지금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있다고, 혁명의 길에는 일시적인 난관도 있을수 있고 시련도 있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것만큼 동무들은 일시적인 애로와 난관에 동요하지 말고 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강일위원장은 그이께서 지금까지 내외정세에 대하여 그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신것이 자기들이 조성된 일시적인 애로

와 난관앞에서 동요하지 말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기 위한것임을 깨닫게 되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해외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면 무엇보다도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살고있는 모든 동포들을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신문사를 내온것은 잘한 일이라고, 동포들을 각성시켜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두리에 묶어세우자면 신문사를 내오고 신문발행부수를 늘여 모든 동포들이 다 신문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고,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게 살고있는데 신문을 많이 발행하면 동포대중을 교양하는데서 큰 효과를 볼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예술축전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을 많이 조직하며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공동투쟁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등 조선통일촉진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를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은정어린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오찬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일위원장이 동포들속에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는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강일위원장은 조선사람이면서도 우리 글도 모르고 살아오던 독립국가협동체지역 동포들의 지난날을 되새겨보았다.

돌이켜보면 로씨야와 중앙아시아 등 이전 쏘련지역에 널리 퍼져살고있는 수십만의 조선사람들은 생김새만 같을뿐 우리 말도 풍습도 문화도 모르고 이민족들속에 넋을 빼앗긴채 생활의 세파에 부대껴왔다.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 래력을 거슬러올라가보면 우리 근대민족사와 이어져있었다. 대체로 함경도지역에 고향을 둔 그들의 선조들은 불우한 민족의 운명을 통탄하며 조국을 떠나 주로 원동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1937년에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이다.

《민족의 파편》으로 삶의 터전에서 몇번이나 뿌리뽑힌 그들, 정든 고장을 떠날 때마다 조선사람의 리별의 한이 스민 《아리랑》의 가락이 그들의 가슴속에 사무쳤으련만 그들의 후손들은 우리의 옛 민요 한곡조 제대로 뽑을줄 몰랐다. 아니 자기 민족의 고유한 말, 이름조차 잃고 살았으니 민족문

화는 더 말할것도 없었다.

민족의 넋을 되찾아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살기 위해 조선통일촉진위원회는 동포들속에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한 사업을 벌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이어 그의 가정형편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들, 손자는 없고 딸들과 외손녀들만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딸들을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진정 친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그이의 한없는 육친적사랑에 그들부부는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강일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진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올렸다.

《저희들은 지금 그립던 본가집에 찾아와 친아버님을 모신 심정입니다. 주석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이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본가집, 큰집이라고, 해마다 한번씩 조국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강일위원장과 그의 부인의 손목에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손수 채워주시는것이였다.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그들부부는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감격의 눈물만 소리없이 흘리였다.

그들의 손목에 채워주신 금시계, 여기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을 언제나 시계처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걸어

가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어려있었다.

민족의 어버이의 이처럼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곧 강일위원장에게 있어서 통일운동에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게 한 생의 활력소였고 신념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간 강일위원장은 몸은 이역땅에 있어도 불세출의 위인을 모시고있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나갔다.

그는 1993년 9월 로씨야련방국회쎈터에서 조선통일촉진위원회 2차대회와 청년대회를 열고 여기에서 조직의 명칭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국제고통련)로 개칭하였으며 대회기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들의 100만명 서명운동을 발기하고 조국의 도서, 사진, 민예품전시회, 조직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

그 나날속에 강일위원장은 1995년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조국통일상을 수여받는 영광도 지니였다.

조선민족의 피줄을 잇고 민족적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서 살건 민족대단합의 기치아래 묶어세워주시고 운명과 미래도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기에 강일위원장을 비롯한 이전 쏘련지역의 해외동포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제 2 장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세계평화련합 총재와의 담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면 설사 과거에 나라와 겨레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넓은 한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주체80(1991)년 12월 세계를 놀래우는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평양에 찾아온 세계평화련합 총재인 문선명을 친히 만나주신 소식이였다.

문선명총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였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부유한 농가의 둘째아들로 태여난 그는 지난 전쟁시기 공화국을 반대하여 남으로 나가 《통일교》를 만들고 교주가 되였다. 그후 해외로 건너간 그는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벌리며 반공을 주장해왔다. 《승공통일》, 《공산주의소멸》의 구호를 들고 남조선통치배들과 극우익보수단체들과 한편이 되여 반공의 앞장에 서온 문선명은 한때 《2세중심의 북해방전략》이란것을 들고나와 《십자군》편성까지 기도한 사람이였다.

그런 그를 공화국이 받아들였다는 자체도 뜻밖이였고 더

우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 그의 공화국북반부방문은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수십년세월 《승공》을 생의 신조로 삼고 공산주의를 《사탄의 편》이라고 매도하며 살아온 문선명이였지만 로년기에 이르러서는 뒤를 돌아보며 망향의 감정에 젖어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받아안게 되였다.

로작의 구절구절에 흐르는 조국애와 민족애,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동된 문선명은 드디여 공화국을 방문할 결심을 내리였다.

하지만 그가 세계평화련합 총재로서 고향방문을 요청해왔을 때 공화국의 관계부문 일군들은 이를 선뜻 받아들일수 없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관대하게 봐주어도 그와 같은 사람까지 받아들일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선명총재가 공화국에 큰죄를 지은것은 사실이지만 인생말년에나마 고향땅을 밟아보고싶어한다는 거기에서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는 조국애를 보시였으며 그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였다. 그것을 잘 가꾸고 이끌어주어 조

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시킨다면 그의 운명을 련북애국의 길로 돌려세울수 있으리라고 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이렇듯 문선명총재의 고향방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넓은 도량에 의하여 실현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고향을 방문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특별비행기를 띄워주시고 일군들이 비행장에 나가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도록 하시였다.

하기에 문선명은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동행한 일군에게 나는 지금까지 반공을 하였지만 **김일성**주석님을 반대한 일은 없다, 나는 이번에 반공을 하러 조국에 온것이 아니라 련공을 하러 왔다, 지금까지 나와 공산당은 두 극이였는데 두 극이 합치면 남는것은 매국노밖에 없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공화국에 도착한 문선명총재는 친척, 친우들도 만나보고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비극을 뼈저리게 절감하였으며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참된 삶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는 공화국방문기간 북과 남이 다 합하여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고 온 겨레가 하나가 되여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줄것을 기도드리군 하였으며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

회 위원장과 회담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10개 조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 제도가 다른 북과 남이 서로 공존, 공영하는 기초우에서 같은 민족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과 함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원칙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조국통일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여있었다.

조국방문일정이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문선명총재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이를 만나뵙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같은 도량으로 그의 소청을 너그럽게 받아주시였다.

문선명총재가 조국을 떠나기 전날인 주체80(1991)년 12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문선명총재선생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부인과 친우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만나 낯을 익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숙해지게 된것자체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하시면서 어제 우리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위원장과 세계평화련합 총재선생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자신께서는 공동성명에 밝혀진 내용들을 서로 성실히 리행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분에 넘치는 과분한 믿음을 받아안은 문선명총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환영하시고나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1972년에 남측과 함께 발표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 즉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특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밑에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민

족의 대단결을 주장하여왔다고 하시면서 1945년 10월 14일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10여만명의 평양시민들앞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자고 호소하신데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통일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고 생각에 잠겨있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르치심을 이어가시였다.

나는 얼마전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우리 일군들과 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는것이 그 담화문의 기본사상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통일을 원하는 애국자이고 민족의 대단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통일을 반대하는 매국자이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체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다. 우리 민족내부에 대단결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때문에 외부에서도 바로 그런 세력을 부추기고 우리 민족내부에 쐐기를 쳐서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우리 민족내부가 짬이 없이 다 단결

되여있으면 아무리 외부세력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여도 소용이 없을것이다. …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이런 의미에서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통일의 길도 모색하니 우리들은 이미 단결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여러번 말하였지만 우리는 과거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부강조국건설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번영을 바라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애국의 뜻은 문선명총재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두개 국가》의 공존체제를 만들어놓는다면 그것은 후대들에게 《두개 국가》를 물려주는것으로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국가》로 갈라져 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후대들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하나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시려는 철의 의지가 력력히 맥박치는 그이의 교시는 문선명총재의 가슴을 더욱 높뛰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나도 이제는 79살이고 선생도 72살이라고,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후손들에게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생이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도 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고 한다는것을 미국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말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일본사람들에게도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지지하여달라고 말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선명총재일행과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들을 위한 오찬도 차려주시며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한껏 안겨주시였다.

자기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포용력에 감복한 문선명총재는 조국을 떠나면서 그처럼 너그럽고 인자하시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정신에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문선명총재의 고향방문을 허락하

시였을뿐 아니라 친히 만나주시기까지 하시였다는 소식은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반공으로 얼룩진 그 같은 사람까지 고향땅에 발을 들여놓게 해주시고 만가지 허물을 탓하지 않고 만나주신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참으로 위대하다. 지구가 태양에 끌리우듯이 뭇사람들이 그이께 매혹되여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가는 세상리치를 우리도 알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 해외교포신문에 실린 기사의 한구절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때로부터 문선명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바치였다.

과거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천금과도 같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문선명총재가 참된 애국의 길,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여생을 바치게 한 원동력이였다.

통일의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애국의 뜻과 민족대단합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북과 남사이에는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로 고위급회담들이 진행되였다.

여러 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북남고위급회담은 1991년까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5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이미 그 전해의 12월 제5차회담에서 채택된 북남합의들이 정식 발효된다는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전 세계가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를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이 성과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았다.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써오시며 북남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20일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성원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남측대표단일행은 흥분되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친 쌍방대표단 성원들과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울여온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실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합의들이 채택발효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실현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드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6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것을 제안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정부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해소를 위한 평화제안들을 련이어 내놓도록 하시는 한편 북남고위급회담개최를 위한 주동적인 공세를 펴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이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회담에서 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와 반면에 남측은 회담에서 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문제라고 할수 있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핵무기철페문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중지문제, 북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보안법》의 철페문제 등 기본문제를 외면하고 《교류, 협력》문제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분렬주의적인 《실체인정》이니 《현실인정》이니 하는것을 고집하면서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남측이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와 립장으로 회담에 림하였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여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하지만 남측은 회담장밖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명색의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가 하면 국제무대에서까지 회담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대화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였다.

그리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은 1990년 12월 3차에 걸친 회담끝에 중단되게 되였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악랄한 회담파괴책동에 최대의 인내성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나 회담이 다시 이어져 민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려고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고 밝혀주시면서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며 신뢰를 두터이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과 과업들을 지지찬동하였으며 공화국정부는 중단된 북남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그후 진행된 3차례의 회담들에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량에 의하여 마침내 북남합의들이 채택발효되게 되였다.

지나온 회담진행과정을 돌이켜보는 쌍방대표단 성원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통일을 향해나갈데 대하여 서약한것은 어떤 외부세력도, 사상과 제도의 그 어떤 차이도 수천년동안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을 갈라놓을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고 언급하시였다.

장내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감동된 남측 수석대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지당합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여러분들의 회담성과를 두고 민족공동의 성과로, 민족적리념의 력사적승리로 여기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고 격려하여주시고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이번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참으로 귀중한 첫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이 걸음은 이제 멈추어서도 안되고 주춤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래일의 통일에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한 귀중한 첫걸음, 반드시 래일의 통일에로 이어져야 할 첫걸음!

통일의 길우에 내디딘 첫걸음을 줄기차게 이어나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것을 바라시는 민족의 어버이의 고귀한 가르치심이였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분과 감격으로 가슴높뛰게 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는 남측대표단 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흥분으로 상기된 쌍방대표단 성원들에게 북남합의들을 성과적으로 리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우리 나라의 분렬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스스로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외세의 힘에 의존하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대결하려는 자세이지 통일하려는 자세라고 볼수 없다고, 그러한 자세로써는 북과 남의 합의사항도 제대로 리행할수 없으며 서로 책임질수 있고 신뢰할수 있는 대화도 하기 어렵다고, 서로 화해를 약속한 이상 이제는 대결관념을 버리고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동족을 신뢰하고 민족자주력량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머리속에 깊이 새겨넣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은 또한 평화문제의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북과 남은 불가침에 합의한 조건에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불가침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도 여기에 있고 북침과 《남침》의 위구를 완전히 가시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제는 나라안에 외국군대도 있을 필요가 없으며 외국의 군사기지도 있을 조건이 없다

고,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조선반도에서는 한시도 전쟁의 위협이 가시여진적이 없었다. 특히 미국이 남조선의 도처에 배치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그들이 남조선당국과 함께 끊임없이 벌려놓은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되는 원인이였다.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거하여야만 나라의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어차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하는것은 민족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사상의 장벽, 제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온 민족을 단합시키는 폭넓은 민족대단결과 애국애족을 지향하

는 정치를 실시하여야 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통일의 방략을 환히 밝혀주고 뜨거운 민족애가 흘러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담화는 북측대표단 성원들은 물론 남측대표단 성원들과 수행기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남측대표단 수석대표는 거듭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자주적으로 북과 남이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한 쌍방대표들을 만나주신 이후 그해에 열린 제7차, 제8차회담들에서는 북남합의서들을 리행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수십년간 대결을 거듭해오며 오해와 불신의 장벽만을 쌓아온 북과 남사이에 귀중한 합의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고귀한 가르치심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전 유엔주재 남조선대사도 만나시여

주체81(1992)년 4월의 평양은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명절을 맞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흐르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온 겨레와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리고있었으며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그이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으로 달려왔다.

중국, 캄보쟈, 라오스, 기네, 우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당, 정부수반들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의 축하대표들, 수십개에 달하는 해외동포축하단과 방문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외국예술단들이 련속 도착한 평양은 성대한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꽃피는 4월에 평양으로 달려온 사람들속에는 재미동포 림창영과 그의 부인도 있었다.

4월 15일을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때로부터 며칠후인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창영과 그의 부인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림창영을 한품에 뜨겁게 안아주시며 반갑게 맞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박한 음식상으로 그들부부를 다정히 이끄시였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드시군 하던 언감자국수를 비롯한 별식들이 차려져있었다.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기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림창영의 눈앞에는 지나온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는 망국노의 운명을 태줄처럼 감고 태여난 불우한 수난자의 첫 세대였다.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과 신학교를 나온 림창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도산 안창호의 주장에 동조하여 교회와 학계에 열정을 기울이기도 하고 사대에 물젖어 큰 나라들에 독립청탁을 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8.15이후 남조선에 돌아온 그는 미군정청 하지중장의 고문 서재필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으며 결과적으로 삼천리강토를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야망실현에 리용당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하였다.

1960년대초에 유엔주재 남조선대사로 있는 기간에는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족앞에 죄되는 일도 하였다.

그러던 림창영은 남조선에서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사깡패들이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유엔에 알리라.》고 지시하였을 때 그것을 단연 거부하고 대사직을 사임하였다. 또한 미

국무성과 국회에 《박정희쿠데타정권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청원하였으며 《워싱톤 포스트》 등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고도 하고 백악관앞에서 시위도 벌렸다.

이처럼 《유신》독재에 거부감을 품고 향방없이 《유신》철페, 민주화를 부르짖던 림창영은 점차 조국과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였다. 그러던 그는 1970년대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아안고 깊이 감명되였다. 하여 그는 그후부터 동포들의 앞장에서서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갔다.

이국땅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있는 그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창영을 조국에 불러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선생이 미국의 정계와 학계, 종교계, 언론계인사들과 친교관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자신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국통일의 지지세력을 늘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있는것은 애국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이때로부터 림창영의 가슴속에는 참된 애국의 넋이 자리잡게 되였으며 통일애국의 한길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게 되였다. …

지나온 자기의 곡절많은 인생길, 민족의 태양의 품에 안겨 보람차게 살아온 나날들을 돌이켜본 림창영은 흥분된 마음을 다잡고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건강축원

의 인사를 정중히 올리면서 그이께서 국사로 다망하시지만 이처럼 시간을 내여 만나주시고 훌륭한 음식까지 차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목메인 소리로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창영선생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자고 하시였다. 이윽고 잔을 비우신 후에는 그의 안색을 주의깊게 살피시며 아픈데가 있으면 꼭 말해야 한다고 다정히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이 교시에 림창영은 감격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있다가 주석님께서 이번 4월명절에도 해외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시여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느라고 그토록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그러면 휴식은 언제 하시는가고 말씀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감사하다고, 좀 피곤하더라도 그런 일을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조용히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림창영의 가슴속에 천만근의 무게로 뜨겁게 울려왔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수천수만리의 험난한 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던 그는 이번에 조국에 와서 수령님의 회고록

을 읽으면서도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시절부터 정치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말씀드렸다.

정치활동이라고 할것은 못된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혁명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시고 손정도목사와 여러 반일애국운동자들, 애국적인 종교인들의 이름을 꼽으시면서 림선생을 비롯하여 숭실학교를 나온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고 하시며 그들의 활동을 애국활동으로 크게 내세워주시였다.

그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자신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이번에 조국에 올수 있은것을 하느님덕으로 알았는데 조국에 와서 보니 **김일성**주석님의 덕망때문이였다고, **김일성**주석님 슬하에서 온 겨레가 꼭 통일을 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이때 그의 부인 리보배녀성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는 동유럽에서 란이 일어났을 때 너무도 걱정스러워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들에게 평양은 어떻게 될것인가고 물어보았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아들은 동유럽나라들과 평양은 서로 뿌리가 다르기때문에 일없을것이라고 대답하더라고 하면서 이번에 조국에 와서 보니 그 말이 충분히 리해된다고 자기의 마음속생각을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은 주체

사상의 뿌리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남조선이 련방제통일제안을 받아무는것이 좋다, 북과 남이 서로 물어뜯을내기를 하지 말고 전쟁을 할내기도 하지 않고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면 북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있고 남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있으면서 함께 살수 있다, 나는 남조선에서 왔던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그후에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다음의 문제는 후손들이 다 결정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고 하시며 그들부부에게 조국통일의 실현방도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통일방안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림창영과 그의 부인은 눈앞이 확 트이는것같았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먼저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국과 겨레의 아픔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더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림창영은 위대한 주석님은 저 하늘의 하느님과 같이 전지전능한분이시오니 앞으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련방제통일방안실현에 전심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라고 하시며 온 겨레를 단합시키면 통일이 백번 가능하다고, 그래서 림선생이 미국에 돌아가면 앞집문도 두드리고 옆집문도

두드리면서 동포들모두가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림창영의 가슴은 또다시 세찬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다. 일찌기 수십년세월 그리스도교에 몸을 담그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어온 그에게 있어서 그이의 이 가르치심이야말로 성서에서도 찾을수 없었던 진리가 아닐수 없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나가실 의지를 지니시고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정책으로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김일성**주석님, 그이는 정녕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 생각으로 그는 가슴후더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덧 시간도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한식솔과도 같은 지금의 이 모습이 통일조국의 모습으로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다듬으며 림창영은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알고계시겠지만 서양에는 인생은 80살부터 시작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장장 80평생 고생만 하신 주석님께서 통일조국에서 락을 보시며 무궁장생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포지성인부부의 진정을 받아주시며

림선생은 83살이고 리녀사의 나이도 적지 않은데 우리모두 건강해서 통일에 전심하자고 굳은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와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을 찍는 그 시각 림창영의 눈앞에는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통일조국만세를 목청껏 부르게 될 그날이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해외에서 통일위업실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애써온 한 해외동포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가 애국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나갈수 있도록 따뜻이 손잡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있어 림창영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애국인사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해외동포 한사람, 한사람을 자그마한 차별도 없이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민족대단합과 통일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우리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조국통일에 특색있게 기여하도록

제3차 범민족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주체81(1992)년 8월 20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하고있던 미국전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이 대표단에는 단장인 미국전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리승만회장을 비롯한 재미교포들과 미국인들이 망라되여있었다.

해방전 평양의 목사가정에서 태여나 신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리승만회장은 조선전쟁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대학과 신학교들을 졸업하고 근 30년간 미국의 그리스도교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정계, 사회계, 종교계의 많은 인사들과 인맥관계를 맺고있었다.

이러한 리승만회장에게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절부터 우리 겨레가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신 민족의 어버이, 세계정치의 원로로 온 세계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것이였다.

그의 그 소원이 마침내 풀리게 되여 리승만회장은 긴장되고 흥분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리승만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미국전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한다고, 미국전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회장선생이 미국의 여러 선생들을 망라한 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승만회장을 바라보시며 회장선생을 오늘 처음 만나지만 이전부터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오늘 당신들을 처음 만나지만 앞으로 다시 만나면 구면친구로 될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와 여러분이 자주 만나 친숙해지면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깊이있게 나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회장선생과 여러분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고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과분한 치하를 하시였다.

비록 미국땅에서 살고있지만 조선사람으로서, 박애와 평등, 화목을 설교하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분렬된 조국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려온 자기의 응당한 소행을 두고 따뜻한 감사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리승만회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을 둘러보시며 조국통일

문제를 놓고 진지한 담화를 시작하시였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갈라져 살아서는 안됩니다.》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한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은 리승만회장과 대표단성원들은 수령님께 조선인민의 가장 큰 고통은 나라가 분렬된것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앞으로 당신들이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신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은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훌륭한 공헌을 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몸은 비록 바다건너 멀리 있지만 조선사람의 넋을 간직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려는 자기들의 자그마한 소행을 지지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에 리승만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 활약한 그리스도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추연한 안색을 지으시고 지난 시기 조국의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공헌한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감회깊은

회고의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해방투쟁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3.1운동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가운데도 그리스도교인들이 여러명 있었다고, 유명한 105인사건때 일제놈들에게 체포된 사람들가운데도 손정도목사를 비롯한 그리스도교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조직한 조선국민회 성원이였다고 하시면서 잊지 못할 은인인 손정도목사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손정도목사는 지난날 나의 초기혁명활동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가 길림에서 운영한 례배당은 나의 지하활동장소였다. 그때 그리스도교청년회관도 리용하였는데 청년들은 일요일에 례배를 보는 날이지만 그리스도교청년회관에 모여들군 하였다. 그리스도교청년회관이 간판은 그렇게 붙였지만 우리가 청년들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는데 리용하는 구락부나 같았다. …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도 그리스도교신자였지만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큰 외삼촌은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무장을 들고 싸우다 체포되여 13년이 넘도록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집에 나와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며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나라의 해방을 위한 애국의 길에 한몸 다 바친 외가분들에 대하여 추억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리승만회장을 비롯한 미국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이미 만경대고향집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애국적가정에 대하여 알고있은 그들이였지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이 싸우신 그이의 외할아버님과 외삼촌이 자기들과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이였다는 사실은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감동에 젖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어린시절의 스승이였던 강량욱선생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량욱선생도 그리스도교목사이지만 해방직후부터 우리 당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해방직후에 강량욱선생의 가정에서는 반동들의 테로에 의하여 아들과 딸을 잃는 불행한 일이 생겨온 가족 특히 부인이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시면서 아마 단장선생도 그때의 일을 알고있을것이라고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지금 이 좌석에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였는데 그가 바로 강량욱선생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주시는것이였다.

강량욱선생에 대해서는 리승만회장도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그때 그의 어머니가 창덕학교에서 얼마간 교편을 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리승만회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 어머니로부터 창덕학교에서 얼마동안 교편을 잡고있을 때 강량욱선생과 가깝게 지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창덕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는 녀선생들이 여러명 있었다고, 그들의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그 녀선생들가운데 회장선생의 어머니도 있었을것이라고 하시며 매우 반가와하시였다.

자기의 어머니가 창덕학교에서 교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처럼 기뻐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리승만회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여올랐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도 남조선당국자들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싸우고있다고, 문익환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문익환목사를 그전에는 만나본 일이 없다고, 그가 남조선당국자의 《7.7선언》이라는것이 발표된 다음에 나를 만나러 평양에 왔다고 하시면서 그를 만나시였을 때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리승만회장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이 맥박치는 가르치심이였기때문이였다.

문익환목사에 대한 그이의 교시는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는 공화국북반부에 체류하는 기간 해당 부문 일군들과 회담도 하고 우리 당의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문익환목사가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남조선경찰은 그를 비행장에서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 갔다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평양에 왔다간 70고령의 문익환목사를 감옥에 잡아가두는것을 보면 잔인하기 그지없다고, 남조선당국자들은 문익환목사를 석방할것을 우리가 북남총리회담때 강하게 요구하고 남조선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이 요구해나서자 마지못해 석방하였다가 얼마 못가서 다시 잡아가두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시종 인자한 미소가 흘러넘치던 그이의 안광에는 근엄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리승만회장은 조국통일을 위해 평양을 다녀간 남녘의 한 목사의 소행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신상을 걱정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심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담화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승만회장과 대표단성원들이 1986년에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하여서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1986년 4월에 미국전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대표단 성원으

로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리승만회장은 방문기간 3차에 걸쳐 조선그리스도교련맹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조선방문정형에 대하여 자기 단체에 통보하고 공화국을 소개선전하는 출판활동을 적극 벌렸다. 그해 9월 대표단은 자기 단체의 명의로 조선의 통일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고 조선사람자신들이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던것이다.

리승만회장은 자기들이 벌린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는 그이께 대표단성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놓은 좋은 일은 응당 나라와 민족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의 앞장에서 활약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더없이 값높은 평가의 교시에 리승만회장은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경건한 자세로 그이를 우러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의 여러 성원들이 올리는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담화를 이어나가시였다.

미국상공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무가 조선의 통일이 무력

에 의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화통일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라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하는것은 내가 1972년에 남측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놓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라고 명백히 밝히시였다.

이어 미국련합감리교 세계선교부 동양총무인 《정의, 평화, 통일을 위한 코레아련합》 위원장이 미국에서 사는 동포들의 수가 지난날과는 대비할수 없이 급격히 늘어난 조건에서 주석님께서 재미교포사업에 대하여 많이 지도해주실것과 현재 재미교포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미국에 살고있는 동포들에게 이래라저래라하지 않지만 당신이 요청한것만큼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간단히 말하려고 한다고, 나는 우선 미국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재미교포사업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재미교포사업에서 중요한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을 굳게 단결시키는것이라고 본다고, 재미교포수가 그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조건에서 재미교포들을 단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

다고 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지금 재미교포들속에는 단체가 너무 많다고, 재미교포들속에 단체가 3인1당식으로 많이 조직되여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재미교포들을 하나로 단합시킬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재미교포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그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표명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보아도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여러번 말하였지만 우리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가 어디에서 살고있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조국통일위업수행에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고있건 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수행에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경륜을 다시금 느낄수 있게 하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대표단성원들모두가 그이의 교시에 담겨진 깊은 뜻을 되새겨보고있을 때 미국련합감리교 세계선교부 위원장이 일어서서

조미관계개선문제에 대한 공화국의 립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미국정부에 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주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면 미국과도 좋게 지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조선과 미국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본다고, 조미 두 나라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응당 평등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대표단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오찬도 베푸시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살고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지닌 애국애족의 념원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의 길우에서 조선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태권도로 통일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며

주체81(1992)년 9월 하늘은 파랗게 높고 전야마다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던 좋은 계절에 평양에서는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였다.

세계 60여개 나라의 600여명의 태권도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달려오는 속에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동포도 국제태권도련맹 리사회 성원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맑고 푸른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는 최홍희총재의 가슴속에서는 류다른 환희가 솟구쳐올랐다.

그는 나라와 민족앞에 떳떳치 못한 과거를 안고있던 사람이였다.

해방전 일본군에 학도병으로 강제징집되였다가 해방이 되여 고향에 돌아왔던 그는 운명의 궤도에서 탈선하여 남쪽으로 나간 후 남조선군에 들어갔다. 조국해방전쟁때 남조선군 사단을 이끌고 38°선을 넘어섰던 그는 그후 남조선군 군단장까지 하면서 공화국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였다. 한때는 외국주재 남조선대사로 있으면서 반공을 부르짖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5.16군사쿠데타이후 군사파쑈독재와 매국적인 남조선일본협정체결을 반대한것으로 하여 집권자의 눈밖에 나

게 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남조선사회에 침을 뱉고 해외망명의 길을 택하게 되였다.

1971년 카나다로 망명한 후 최홍희는 태권도를 수단으로 하여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결심을 내리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총재의 이러한 애국심을 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조국방문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최홍희총재는 비로소 진정한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참다운 애국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그는 태권도로 우리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해나갈 결심을 더욱 가다듬었다.

평양에 도착한 때로부터 며칠후인 9월 10일 최홍희총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새로 준공된 태권도전당을 돌아보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대규모의 경기장과 관람석, 백수십여개의 크고작은 방들과 편의봉사시설, 문화후생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어 국제국내경기들은 물론 여러가지 행사들도 원만히 할수 있는 태권도전당을 돌아보면서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 태권도전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태권도전당이며 이런 전당은 우리 조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씀올리였다.

그러는 그를 정답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가 이 태권도전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태권도전당이며 이런 전당은 우리 조국에서만 건설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태권도의 조국인것만큼 응당 큰 태권도전당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태권도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보는 최홍희총재의 눈앞에는 민족무술인 태권

태권도전당

평양시 만경대구역 청춘거리에 자리잡고있는 태권도경기 및 훈련기지. 1992년 9월 10일 개관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권도전당을 가장 좋은 자리에 규모도 크고 웅장하게, 형식은 독특하게 짓도록 하시고 그 이름도 《태권도전당》이라고 몸소 친필로 써주시였다.

태권도전당은 기본건물과 여러개의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졌는데 건축면적은 7천여㎡이고 연건축면적은 1만 7천여㎡이다.

건물 웃부분은 곡선, 곡면, 직선을 재치있게 결합하여 해결함으로써 경쾌하고 우아한 조선식지붕을 련상케 하여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반영하였다. 기본건물에는 주현관부, 경기홀, 관람석, 훈련장, 소회의실, 휴계실, 편의시설, 사무실, 기계실 등 크고작은 120여개의 방들이 있다.

태권도전당은 우리 나라 태권도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태권도기술보급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있다.

도와 함께 걸어온 지난날이 안겨왔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발전시킨 민족무술의 이름을 태권도라고 지은 때는 1955년이였다. 그후 그는 태권도를 세계적범위로 보급시키기 위하여 1966년에는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고 총재로 활동하였다.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든 태권도는 강한 정신수양과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육체적훈련과정에 사람이 자기 몸에 지니고있는 모든 정신육체적힘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급속히 파급되여갔다.

이렇듯 태권도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게 되였지만 분렬된 민족의 비극은 태권도의 분렬도 초래하였다.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만 태권도의 분렬도 극복하고 하나가 된 태권도로 세계앞에 당당히 나설수 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최홍희총재가 이처럼 태권도의 운명을 놓고 암중모색하며 갈팡질팡하고있을 때 어머니조국은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하여 그는 주체68(1979)년 5월 수십년만에 공화국을 다시 찾게 되였고 5월 12일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한 그는 너무도 놀라와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현관에까지 나오시여 자기를 기다리고계시지 않는가!

최홍희총재는 급히 달려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며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최홍희선생이 멀리 해외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한다고, 우리들의 이번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최홍희총재를 다정히 옆에 세우고 기념사진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그와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한없이 겸허하고 너그러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깊이 감동된 그는 수령님께 자기의 지난날 경력에 대하여 솔직히 털어놓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선생이 흉금을 털어놓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이라면 북과 남에서 살든 해외에서 살든 또 나이

가 많든적든 관계없이 모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 최홍희총재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남경제합작문제를 제기하신 경위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합의들을 전부 뒤집어엎고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행위와 그 검은 속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단합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인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그는 깊은 감동속에 잠겨있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고수하고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미국, 일본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며 조국통일에 저해를 주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남조선에서 파쑈독재정치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가르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최홍희총재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최홍희총재는 한갖 불우한 망명객에 불과한 자신에게 해외의 애국적민주인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운명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풍모와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민족의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카나다로 돌아간 그는 잡지 《통일로 가는 길》을 특간호로 발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또한 이미 자기가 발행하고있던 신문 《배달신보》의 편집내용에 조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신문을 조국통일을 위한 대변지로 전환시켰으며 카나다교포신문 《뉴 코리아 타임스》지에

투고한 《통일의 한길에서》라는 글에서 남조선독재《정권》의 반통일적, 반민족적행위를 폭로규탄하고 조국통일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주장하는 등 통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

이와 함께 그는 《애국애족이 없는 태권도,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지 않는 태권도는 진정한 태권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태권도보급활동도 활발히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조국을 방문한 최홍희총재를 여러 차례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70(1981)년 10월 18일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최홍희총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서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에도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조선은 통일되여도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을것이며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최홍희총재가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활동에 대하여 좋은 일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다음해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송도원에서 해수욕도 하면서 휴식하는것이 좋겠다고, 한해에 한번씩 좋은 계절에 조

국에 와서 휴식하면 건강에도 좋을것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7(1988)년 11월의 어느날에는 최홍희선생이 그동안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고국산천을 그리며 적적하게 생일을 쇠였겠는데 이번에 평양에 데려다 조국의 향취를 한껏 맛보며 마음편히 생일을 쇠게 하자고 하시면서 그와 부인에게 생일상을 함께 차려주시였다.

또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경축하는 집단체조에 태권도종목을 넣고싶어하는 최홍희총재의 소원도 풀어주시였을뿐 아니라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오늘의 조선》을 관람하실 때에는 그를 자신의 가까이에 앉혀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총재를 첫 수상자대렬에 세워주시였으며 태권도활동으로 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조국통일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긴 때로부터 최홍희총재의 참된 삶이 시작되였으며 태권도도 진정한 민족무술로 세계에 그 이름을 떨쳐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태권도와 함께 걸어온 긍지높은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최홍희총재는 웅장화려하게 꾸려진 태권도전당을 감동넘친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권도전당을 돌아보시며 태권도를 계속 발전시켜 완성시키며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여 대중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최홍희총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홍희총재는 민족무술인 태권도의 강화발전을 위해 훌륭한 전당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에 감사를 금치 못해하면서 태권도로 민족의 영예를 떨치고 겨레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한몸 다 바칠 마음속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최홍희총재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 그것은 곡절많고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한 민족무도인도 조국통일투쟁의 거목으로 키워준 자양분이였고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였다.

녀성들이 이룩한 큰 성과라시며

주체81(1992)년 9월 2일 평양에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인 려연구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이며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인 리우정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대표단, 아시아녀성들의 우호회 회장 미끼 무쯔꼬와 일본사회당 참의원의원이며 조선녀성과 련대하는 일본부인련락회 사무국장인 시미즈 스미꼬를 비롯한 일본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해외동포녀성들과 공화국의 각계층 녀성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 북과 남의 녀성대표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아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여기서 녀성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이상 우리 녀성들은 응당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앞장서야 하며 녀성들은 능히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뿐만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 특히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 힘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일치한 합의를 보았다.

토론회에서 북과 남, 해외의 녀성대표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온 겨레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였다.

회의가 끝난 때로부터 며칠후인 9월 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남측대표단 성원들과 해외동포녀성들을 만나주시였다.

온 겨레가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끝없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영광을 지니게 된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흥분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진행된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가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축하해주시였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고 자기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며 토론회의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해외동포녀성들은 물론 몹시 긴장되여있던 남측대표단 성원들도 대번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측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녀성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남측대표단 성원들과 해외동포녀성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자면 무엇보다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는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지난 시기에도 여러번 강조하였다고,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을 만날 때에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시면서 전체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 민족적인 대단결을 이룩하면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시였다.

전 민족의 대단결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이 담겨진 가르치심이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회합을 자주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남조선녀성대표단이 참가한 그자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과 남의 녀성들이 통일의 한쪽수레바퀴

를 움직이기 위하여 단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평양에 온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녀성들이 이룩한 큰 성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조선녀성들이 북에 자주 오고 또 북의 녀성들이 남조선에 가고 이렇게 북과 남의 녀성들만이라도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 면목도 익히고 친근감도 더 생겨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남측대표단 성원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사실 북과 남의 녀성들의 상봉과 접촉은 1990년대에 들어와 분렬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첫 접촉은 1991년에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1차토론회를 계기로 마련되였다.

일본에서 진행된 제1차토론회에 참가한 북과 남의 녀성대표들은 도꾜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공동으로 추적하여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두번째 상봉은 같은 해에 서울에서 진행된 제2차토론회때였다.

서울에 나간 북측녀성대표단은 남조선녀성《국회》의원들과 상봉하였으며 남조선녀성단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지였

다. 남조선녀성《국회》의원들과 상봉한 북측녀성대표단은 그들과 조국통일방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남조선녀성단체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분렬로 인한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는데 녀성들이 앞장서나갈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토론회 역시 일본과 서울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 이어 북과 남의 녀성들이 민족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진지하게 론의하였으며 마음과 목소리를 합치게 되였던것이다.

토론회가 걸어온 로정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녀성대표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이 기회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녀성들에게 나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줄것을 남측대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한없이 따뜻한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그이의 교시에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측대표단 성원들이 평양시와 명승지들을 돌아본 소감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히 해설도 해주시며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였다.

평양을 공해가 없는 도시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와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공화국북반부의 녀성들이 받고있는 국가적혜택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

을 들으며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시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인민적정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이때 남측대표단 단장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가 북으로 오기 전에 감옥에 있는 문익환목사를 면회하였는데 그가 평양에 가면 **김일성**주석님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하시고나서 나는 북남고위급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 총리에게 남측《총리》를 만나면 문익환목사를 석방시키도록 제기하라고 하였는데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그를 석방시키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문익환목사가 70고령에 평양에 한번 왔다간것을 《리적행위》로 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놓을 필요야 없지 않는가고, 나는 문익환목사가 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림수경학생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것으로 해서 5년형을 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남조선《대통령》이 《7.7선언》이요 뭐요 하면서 좋은 말을 하였지만 70고령의 목사와 나어린 처녀학생을 평양에 왔다갔다는 죄 아닌 죄를 씌워 감옥에 넣었고 또 많은 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인사들을 마구 체포구금하고있는데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좋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온 녀성대표들과 해외동포녀성들을 위해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오찬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녀성대표단이 처음으로 왔는데 그들을 만나 간단히 인사나 나누고 헤여지면 섭섭해할것같아 점심식사라도 한끼 같이하는것이 례의도덕이 아니겠는가고 하여 이렇게 오찬을 차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인정미와 동포애를 온몸으로 느끼며 남측의 녀성대표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전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축하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 연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한것만큼 음식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식탁에 오른 언감자국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오찬회장에는 시종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넘치였다.

오찬회참가자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는 북과 남의 녀성들이 함께 참

가했는데 누가 남에서 온 녀성이고 누가 공화국북반부의 녀성인지 구별할수 없다고, 그것은 모두가 다 같은 조선민족이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 민족이 단결하여 나라를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남측대표단 성원들을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남측대표단 성원들은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이날의 담화와 오찬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과 남의 녀성들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리념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한몫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깨워준 뜻깊은 상봉이였다.

재도이췰란드 교포인사와의 담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해인 1994년에도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주체83(1994)년 4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한 재도이췰란드교포인사와 그의 부인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재도이췰란드교포인사는 유럽에서 신병으로 고생하다가 조국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속에 고려의학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서 치료받도록 해주신것만도 분에 넘치는 은정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친히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니 교포인사는 실로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와 부인은 울렁이는 마음을 다잡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선생은 온갖 꽃들이 피여나는 좋은 계절에 조국을 방문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이라고, 세상에 우리 나라처럼 아름다운 산천과 좋은 기후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을것이라

고 긍지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교포인사는 자신도 아름다운 산천과 좋은 기후를 가진 조국에 와서 고려의학치료를 받으며 즐겁게 지내니 건강이 퍽 좋아지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고려의학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자기들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온갖 치료조건을 보장해주시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아주시고도 오늘은 이렇게 몸가까이 만나주시고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들부부는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는 인사를 올리였으며 도이췰란드기자인 루이저 린저가 올리는 인사도 전해드리였다.

또한 그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려는 자신의 포부와 결의도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사하다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선생이 애국적인 지성인으로서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려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아직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자기를 애국적인 지성인이라고 이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는 수령님의 말씀에 그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그가 흥분된 심정을 진정하며 마음을 다잡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또다시 귀전에 들려왔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은 조국애, 민족애의 숭고한 발현입니다. 오늘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애국은 없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설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싸우다가 쓰러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예로운 일로 되기때문에 후회가 없을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애국은 없다.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싸우다가 쓰러진대도 후회가 없을것이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진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분렬의 비극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국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있으며 통일의 길우에서 싸우다 쓰러질지언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몸 다 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의미가 깃들어있었다.

민족의 념원,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이 한몸 초불처럼 불태우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교시를 받아안으며 교포인사는 이

렇게 마음다지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1월에 문익환목사가 별세한것과 관련하여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그리고 조의방문단도 보내려고 하였으나 남조선의 안기부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번에 남조선의 민주단체들에서 문익환목사의 백일추모제에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 사람들이 가는것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것을 놓고보면 남조선통치배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례의도 지킬줄 모르는자들이라고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뢰성벽력인양 방안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은 조국통일에 방해되는 일만 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의 죄행에 대하여 렬거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외세의 부추김밑에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것도 남조선의 통치배들이였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하여 공화국과 함께 발표하고도 실행하지 않은것이 남조선의 당국자들이였다.

또한 조국의 영구분렬을 꾀하며 군사분계선에 분렬의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한것도, 겨레의 통일념원을 안고 공화국북반부를 다녀간 통일인사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간것도, 더우기는

미국에 편승하여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남조선통치배들이였다.

당시의 남조선당국자가 그래도 지난날 민주화투쟁경력도 있고 집권후 《문민》을 표방해나서기에 력대 반동《정권》들과는 다를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던 교포인사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것임을 통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문민》이라는 면사포속에 가려진 친미를 체질화한 반민족, 반통일분자로서의 남조선당국자의 정체가 명백히 안겨오고 그 역시 력대의 파쑈통치배들과 다를바없다는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에 잠겨있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인것만큼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입니다.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하는 경우에 통일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련합위원회나 련방상설위원회 같은것을 조직하고 그 의장은 북과 남이 륜번제로 한 1년씩 맡아하면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 남조선에서 자본주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며 남조선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

하여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이렇게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제도를 다치지 말고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하자는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물론 자주적인 중립국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이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가는 재도이췰란드교포인사의 눈앞에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 일떠선 통일된 련방국가의 밝은 래일이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는 그의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은 다같이 하나의 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은 하나의 말과 글을 가지고있으며 유구한 력사와 좋은 풍속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화국의 고고학자들이 그 전해인 1993년에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릉을 발굴해낸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단군릉개건공사는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도이췰란드교포인사에게 단군릉이 발굴된데 대하여 남조선사람들도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고 하나의 강토우에서 반만년의 력사를 창조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갈라져 살수도 없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교포인사는 이제 머지않아 삼천리지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일의 새날이 반드시 밝아오리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자신의 결의를 그이께 말씀올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믿음어린 음성으로 자신께서는 선생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주기 바란다고 하시며 그와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재도이췰란드교포인사와 하신 담화는 민족의 대단합으로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귀중한 지침이였다.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해외동포들을 만나시여 그들이 조선사람의 넋을 잃지 않고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서도록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그들가운데는 재미교포녀류기자인 문명자도 있다.

처녀시절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0년대에 김대중랍치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고발한 《죄》로 《유신》독재자의 눈밖에 나게 되였으며 결국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미국에서 문명자는 미국아시안뉴스써비스 주필로, 세계기자협회 부회장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정치문제에서의 정확한 포착력과 론리적인 분석, 담담하고 매력있는 필치로 하여 미국에서도 몇명 되지 않는 백악관출입기자로 되였다.

그러나 미국땅에서의 생활이 흘러갈수록 문명자의 가슴속에서는 자주정치의 진원지로 세상사람들이 칭송하여마지 않고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였다.

하여 그는 주체81(1992)년 4월 공화국을 방문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게 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담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고매한 애국애족의 숭고한 풍모를 진실하게 반영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로부터 2년후인 주체83(1994)년 4월 공화국을 방문한 문명자는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를 따뜻이 맞아주시였으며 그가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고 선생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여 매우 반갑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문명자는 그 친근하고 다정한 음성을 들으며 한집안식구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그이의 인자함과 따사로움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감격과 흥분에 잠겨있는 그의 모습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나의 생일 80돐때 조국을 방문하여 나를 만나고 돌아가서 쓴 접견기를 읽어보았다고, 나는 선생이 접견기를 진실하게 잘 쓴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하시였다.

친정집에 찾아온 자식을 대하시듯 정담아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문명자는 주석님께선 몇해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무랍없이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세월이

흘렀으니 나도 이제는 늙었을것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아픈데가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업하고있다고, 사람은 늙었다고 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일정하게 일을 하여야 건강에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 4.15를 계기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 CNN TV방송회사 기자들과 일본방송협회 기자들이 나와 회견한 소식을 여러 나라들에서 TV로 방영하였는데 나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세계의 많은 벗들이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시였다.

문명자는 고령의 년세에도 활력에 넘치시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자주화와 평화를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 위대한 헌신의 세계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미관계에 대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생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는 오래동안 불미스러운 관계가 지속되고있다고, 우리는 조미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관계가 청산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이며 현시대의 흐름에도 맞는것이라고,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관념을 버리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조미관계문제는 얼마든

지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 1월에 미국에서 빌리 그라함목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는 미국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는 미국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가지고왔다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우리도 조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미국대통령과 만나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빌리 그라함목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조미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한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들으며 문명자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온 미국그리스도교계의 권위자인 빌리 그라함목사가 언론에 발표한 소감을 듣던 때를 생각하였다.

그때 빌리 그라함목사는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는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북조선에 한해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이 나라는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된 나라, 리상의 나라이며 이 나라를 이끄시는 **김일성**주석님은 현세의 하느님, 사랑의 아버지이시라고 칭송하여 세계를 놀래웠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할 조건이 없다고, 미국이 우리와 힘으로 겨루어보려고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미국이 우리와 힘으로

겨루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세상사람들앞에서 체면이나 깍이웠지 얻을것이 없다고,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면 아시아에서 자기의 명분을 세우는데도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제3단계의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회담을 통하여 조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조미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시키시려는 그이의 의지와 결심이 맥박치는 귀중한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주성도 실권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과만 대화를 해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조선당국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주인인 미국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조미관계가 개선되여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다.

너무도 명철하고 론리적인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문명자는 그이의 천재적예지에 다시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문명자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관계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데로부터 여러모로 오해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외세에도 추종하지 않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분렬되여있지만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고 모든 문제를 우리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기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처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는 나라는 얼마 없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진실로 자주와 민주를 바란다면 우리와 사귀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북과 남이 통일되여도 그 어떤 대국에 예속된 위성국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될것입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련방제통일방안의 진수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문명자는 자기의 취재수첩에 한자라도 놓칠세라 적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남조선당국자의 반통일행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까밝혀주시였다.

문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께 《주석님,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실수 있습니까?》라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과업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외면하고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누가 나에게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대통령을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국통일이 중요하지 누가 어떤 직위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이 중요하지 직위가 중요한것이 아니다!

오로지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어려있는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수 없으며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고, 나는 최근에 우리 력사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를 옳게 해명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하시며 단군릉발굴에서 이룩된 성과와 고구려의 력사해명에서 나서는 문제, 우리 나라에서 시조새의 화석이 발굴되였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시조새를 《조선시조새》로 부르도록 하였다는데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여

수수천년력사의 풍운속에서 신화적존재로 전해져오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밝혀지고 바로 전설적인 그 단군이 우리 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해명되게 된데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당시 강동에 있던 단군릉에 관한 자료와 단군릉주변의 단군동, 아달동, 대박산, 아달산과 같은 단군과 관련된 지명들이 어학자들에 의하여 조사되였다. 한편 단군릉과 관련한 력사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력사학자들은 현지에서 릉을 보고 주민들과 담화한데 기초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강동의 단군릉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짓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한 자료들을 확인하도록 하신 다음 단군릉을 발굴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단군릉에 대한 력사적인 발굴사업이 진행되였다.

발굴과정에 주검칸바닥에서 사람의 뼈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그러시면서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력하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될것이며 단군의 후예들인 7천만 우리 겨레는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실로 문명자로 하여금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통일조국의 앞날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희망

금속왕관 앞면장식, 금동왕관띠쪼각, 패쪽띠의 패쪽, 도기 등이 나타났다.

실로 이것은 뜻밖의 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뼈의 년대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최신형년대측정기구를 가지고 년대측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단군의 뼈에 대한 년대측정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였는데 그에 의하면 단군이 5 011년전에 태여난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유골을 찾아낸것은 우리 나라 고고학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정녕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찾아주신분은 민족애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릉은 웅장하게 개건되였다.

으로 가슴부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를 마치시면서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문필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감복한 문명자는 그후 통일언론인의 사명감을 안고 민족의 대단합을 위한 격류속에 더욱 힘차게 합류해나섰다.

제 3 장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려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생각한다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인 우리 민족이지만 동시에 련관문제들을 해결하여 국제적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그만큼 유리해지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통일운동을 령도해오시는 전 기간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며 통일문제에 책임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전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밝혀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립장은 국제적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조국통일5개방침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문제는 력사적으로 국제관계와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으며 조선이 분렬된것도 국제관계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며 조선의 통일이 지연되는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고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북과 남은 대외관계에서 언제나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분렬의 고정화를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도록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조선문제에 관련이 있는 나라들도 조선에서 분렬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는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 응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전 기간 만나시는 외국인사들과 벗들에게 공화국의 조국통일사상과 방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조선의 통일을 지지성원해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은 더욱 강화되고있었다.

주체79(1990)년 4월에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사단은 벨지끄사회당 뷰로성원이며 벨지끄 왈롱지역리사회 위원장인 윌리 뷰르좋을 단장으로, 스위스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전 제네바시장인 로줴 다플롱, 전 그리스장군인 죠지 빠따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를 단원으로 구성되였다.

4월 26일 평양에 도착한 조사단은 4월 28일 장풍군 대덕산리, 사시리, 국화리 등에서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을 직접 보면서 그의 존재를 확증하였다.

조사단 단장은 콩크리트장벽을 보고나서 오늘 우리는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하고있는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한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오늘 남측지역에 콩크리트장벽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확증한 이상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것이다, 이 콩크리트장벽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장벽이라고 하였으며 조사단성원인 죠지 빠따스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한 기본목적은 조선을 영원히 분렬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 장벽은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조사단성원인 기 듀프르는 나는 방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그처럼 없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여론을 오도하던 콩크리트장벽을 록화하였다, 콩크리트장벽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내가 촬영한 화면을 통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

지게 될것이다, 콩크리트장벽이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구축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것은 철면피한자들의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조사단성원인 로쉐 다플롱은 이 장벽은 20세기의 민족분렬의 상징으로 된다고 하면서 콩크리트장벽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것을 찬성한것처럼 조선분렬의 장벽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유럽에 돌아가서 조선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콩크리트장벽이 존재한다는것을 적극 선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30일 조사단성원들모두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세계정치의 탁월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로 달려가는 조사단성원들의 마음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기 듀프르의 가슴은 류다른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한것은 바로 한해전 세계인류가 경모하여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금옥같이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기때문이였다.

오래전부터 세계의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찾던 그는 세계 진보적인류가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사상을 연구하면서부터 세계의 령수는 바로 동방조선의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주의 모든 행성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힘을 가진 태양과도 같으신 위대한분에게 자신이 끌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하여 기 듀프르서기장은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조직된 1977년 6월부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여왔으며 이 사업에 자신의 있는 정열을 다 바쳐나갔다.

그러던 주체78(1989)년 7월 조선을 방문한 기 듀프르서기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건강을 축원하는 그의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한다고, 당신이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감동되였다고 하시며 그동안 그의 사업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신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기간에 다른 나라의 명예손님들을 만날 때 함께 만나면 당신과 얼마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기념사진이나 찍은 다음 헤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의례적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축전이 끝난 다음 바쁘지 않을 때 만나겠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시간을 냈으니 당신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민의 벗이고 나의 오랜 벗입니다.》라고 따뜻이 이야기하시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이번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하여 한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당국의 탄압으로 축전에 많이 참가하지 못한것이라고 가슴아픈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 얼마전에 평양에 온 문익환목사를 만났는데 그는 나와 만난 자리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떼여놓을수 없다고 하였다고, 그래서 나도 반제자주, 반파쑈민주화,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당신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우리의 사상과 같다고 말해주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 듀프르서기장에게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간섭을 반대하고있다고, 남조선의 많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있다고, 남조선인민들이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있는것만큼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해 확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넘친 모습을 우러르며 감격에 젖어있는 기 듀프르서기장에게 수령님께서는 당신이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있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제4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는데 그 대회의 진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그 대회는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며 조선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함께 정원의자에 앉으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명확한 대답을 주는 담화를 진행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와 헤여질 때가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매해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올 때에는 아들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시며 그때에는 자신께서 직접 그들에게 즐거운 휴식조건을 마련하여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까지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기 듀프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가슴이 후더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다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90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을 세계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하고 그들이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결과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확대되고 그 활동이 적극화되였으며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새로운 련대성단체들이 창설됨으로써 1990년에 이르러 그 수는 80여개 나라에 320여개에 달하고 1 000여차례의 각종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기 듀프르서기장이 지난 한해동안 조선의 통일을 위해 노

력해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느라니 어느덧 그들일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게 되였다.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된 조사단성원들의 마음은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이윽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조사단성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나서 《우리는 당신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당신들을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 남조선당국자들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조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그들의 사업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은 기 듀프르서기장을 비롯한 조사단성원들의 가슴은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는 감격에 휩싸이였다.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새기면 새길수록 자기자신들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치하의 말씀이였다.

한것은 자기들이 국제조사단의 한 성원이 되여 조선을 방문하고 콩크리트장벽에 대해 조사한것은 세계의 평화와 조선

의 통일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사단성원으로서의 본분을 한 그들을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조선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전호에 선 전우라는 값높은 믿음과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니 그들의 심정이 왜 격동되지 않으랴!

너무나 과분한 치하를 받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수령님께서는 《나는 올해신년사에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북과 남을 갈라놓는 콩크리트장벽이 있다는것조차 모를수 있으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아 그대로 있는것처럼 잘못 인식할수도 있습니다.》라고 준절히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콩크리트장벽을 쌓는것을 처음부터 반대하였고 지금도 그것을 허물어버릴데 대하여 완강히 주장하고있다고, 동서도이칠란드를 갈라놓고있던 장벽이 허물어지는것을 보고 미국대통령도 기뻐했고 남조선당국자도 좋은 일이라고 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신들이 이번에 콩크리트장벽조사단을 무어가지고 우리 나라에 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조사단성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세계평화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결심하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그들은 그후 련명으로 된 조선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을 조사한 국제조사단 보고서를 1990년 5월 11일 빠리에서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당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이 반땅크차단물이라고 하던것이 다름아닌 한 나라, 한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콩크리트장벽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민족분렬의 상징 콩크리트장벽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당국은 1977년부터 여러해에 걸쳐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을 따라 동서의 산허리와 강하천을 가로지르며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80여만t에 달하는 세멘트와 20여만t의 강재, 350여만m³의 혼합물, 수백만공수의 로력이 투하되였다.

높이가 5～8m, 밑부분 너비가 10～19m, 웃부분의 너비가 3～7m나 되는 이 장벽은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을 갈라놓았으며 철길과 크고작은 수많은 도로들을 끊어놓았다.

콩크리트장벽은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민족분렬의 장벽이다.

콩크리트장벽국제조사단의 활동에 의해 그후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게 되였으며 삼천리강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쌓은 반통일대결분자들의 죄행은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관련있는 나라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만나주신 외국의 벗들중에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고위정객들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인사들도 있다.

그들속에는 일본 《마이니찌신붕》편집국 국장 모리 고이찌도 있었다.

《마이니찌신붕》은 1882년에 창간된 일본에서 가장 오랜 신문사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 특파기자들을 두고있었고 수백만부의 신문을 발행하는 활동범위가 비교적 큰 신문사였다.

신문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좌우 어느 편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정치사론을 내는 이른바 《불편부당》을 표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내외에서 일정한 관심을 모아왔으며 더

우기 1972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신문사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당시 조일관계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의문을 품고있던 모리 고이찌국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속시원히 제눈으로 보고 듣는것이 낫겠다는 생각끝에 평양방문의 길에 몸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80(1991)년 4월 19일 《마이니찌신붕》 편집국장일행을 만나주시였다.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이니찌신붕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편집국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9돐을 축하하여 보내온 일본자유민주당 총재인 가이후 도시끼수상의 친서와 선물을 전해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사의를 표시하시고나서 편집국장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명확한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당신들이 제일 관심하고있는 조일국교정상화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에 친선관계의 새 력사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 정부는 마땅히 자주적립장

에 튼튼히 서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것이며 조일관계문제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관계와 깊이 련관되여있는 문제라고, 원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렬이요, 통일이요 하는 문제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렬강들이 조선문제를 동서간의 대립관계에 기초하여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가 분렬되지 않았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모리 고이찌는 조선이 분렬되게 된 책임이 미국뿐 아니라 자기 나라에도 있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큰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민족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요구일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우리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문제들과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

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가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해나서야 할것입니다.》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마이니찌신붕》이 앞으로 조일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긍정적역할을 할것을 희망하며 당신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이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편집국장일행은 일본으로 돌아가 조일관계뿐 아니라 린방인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지를 가다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이니찌신붕》 편집국장일행을 만나주신 소식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 소식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 일본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인사들속에서는 세계인류가 우러르는 대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었다.

하여 1991년 5월말 일본의 교도통신사 사장 사까이 신지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오게 되였다.

사까이 신지사장은 18년전에 왔을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조선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조선인민이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도록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고싶은 소망을 누를길 없었다.

그의 소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6월 1일 교도통신사일행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교도통신사 사장은 자기를 따뜻이 반겨맞아주시는 **김일성**주석님께 자신의 인사와 함께 지난해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간 가네마루 싱이 드리는 인사도 정중히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장선생의 이번 평양방문을 환영한다고 하시고나서 일본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많이 방문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두 나라 벗들사이의 왕래가 많아지면 그것은 곧 조일관계를 개선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나는 지난해 가네마루 싱선생과 상봉하여 조일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헤여졌다고, 돌아가면 그에게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회고해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조일관계개선과 관련한 문제와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시였다.

아래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일부를 소개한다.

물음: 일조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대답: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본질상 두 나라사이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입니다.

두 나라사이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거를 옳게 반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이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리로운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리로운가 하는것을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

물음: 북남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대답: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근본립장과 원칙적인 방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진행하는 목적은 조국을 통일하려는데 있는것만큼 대화쌍방이 다같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에만 대화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보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인사들과 청년학생들, 광범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고의적

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북남대화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민족앞에서 대화의 명분이 설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좋은 결실을 가져올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남측에 요구한것은 첫째로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며, 둘째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셋째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북과 남이 협의하여 해결하자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이 세가지 문제를 다 거절하였습니다. 남측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한사코 반대하고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관계합의서를 채택할데 대해서만 고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도 받아들여 불가침에 관한 선언과 기본관계합의서를 하나의 문건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남측은 그렇게 하는것도 반대하였습니다. 속에 품은 칼을 내놓지 않고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관계합의서나 채택하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회담을 파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담을 계속하자는것입니다. 문제는 남측에 달려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광범한 통일력량과 보조를 맞추어 대화에 림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여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은 삽시에 전 세계로 퍼져갔으며 담화의 상세한 내용을 저저마다 신문, 통신과 방송으로 보도하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도꾜신붕》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답의 요지를 일제히 게재하였다. 《니홍게이자이신붕》과 《도꾜신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도통신사대표단과 담화하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이밖에도 영국의 로이터통신, 도이췰란드의 데페아통신, 수리아신문 《수리아 타임스》, 《티슈린》, 《알 사우라》, 《알 바아스》, 아프가니스탄신문 《카불 뉴 타임스》와 마다가스까르의 안따통신과 라지오방송도 담화내용을 일제히 전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이니찌신붕》 편집국장과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은 일본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인사들에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고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불멸의 지침으로 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엔을 통해 조선문제를 여론화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원래 국제련합기구로서의 유엔은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1945년 10월에 창설된 가장 큰 정부적국제기구이다. 그런데 유엔은 그 본래의 목적과 사명에 어긋나게 창설 첫날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을 뒤받침해주는 침략도구로 리용되여왔다.

조선문제만 놓고보아도 유엔의 간판밑에 부당하게 처리된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유엔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시대의 오명으로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엔이 자기의 헌장대로 공명정대한 조치들을 취할것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하는 한편 유엔무대를 통해 통일외교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하여 1973년 9월에 개막된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에서는 7.4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면서 유엔남조선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표결없이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1975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공화국의 립장을 반영한 43개국 공동결의안이 제1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압도적다수의 찬성표로 가결되였다.

이러한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8(1979)년 5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유엔사무총장을 친히 만나시여 유엔이 조선문제해결에서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조선의 영구분렬을 막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기여를 하도록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유엔에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기운은 날로 고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의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긴장해지는 속에서도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가려는 원칙적립장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한겨울의 날씨치고는 류달리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던 주체82(1993)년 12월 25일 오전이였다.

그 전날 서울을 떠나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에 도착한

유엔사무총장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고싶은 자신의 심정을 절절히 표시하였다.

갈리는 에짚트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의 대외담당 부수상으로 일할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었다.

그는 유엔사무총장이 된 후 온 세계가 흠모하여마지 않는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올 기회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드디여 동북아시아를 순회하게 된 기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엔사무총장의 제의를 쾌히 승낙하시였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유엔사무총장과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담아 건강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갈리사무총장에게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당신과 친분관계를 맺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당신이 서울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양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가운데서 판문점을 거쳐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을 오간 사람들은 미국회 하원 의원일행과 유엔사무총장일행뿐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쌓아

놓은 콩크리트장벽이 있다고, 당신들이 동서도이췰란드사이의 장벽이 무너진것을 지지한것만큼 우리 나라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이 무너지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당신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있는 기간에 우리 나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이 이번에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에 온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신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기자들에게 조선이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갈리는 깊은 뜻이 담겨진 그이의 이 말씀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판문점을 통과하게 될것이라고, 이 과정에 조선의 통일이 기어이 이룩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자기의 견해를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고 하나의 말과 글을 쓰면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단일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았다고,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남조선 각계 인사들과 당국자에게 보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 대답도 하지 않고있다고 준절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북과 남의 인민들탓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있기때문이라고,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는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갈리사무총장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유엔이 방조를 줄수 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하나 단호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들끼리 해결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으면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유엔도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도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마디마디에 민족자주의 기상이 맥박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이 한껏 어려있는 명쾌한 말씀이였다. 갈리사무총장은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조성된 난국을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여 우리 나라의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인 명승지도 많고 호텔도 있다고, 그런데 미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있기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부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것을 주저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갈리사무총장은 그이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래왕하면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조선의 북과 남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래왕하면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하는데 물론 북과 남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서로 오가면 조국통일에 도움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이 북과 남의 각계층 사람들이 서로 오가는것을 반대하고있는것이 문제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얼마전에 남조선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93연고민족해방제》행사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였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아 우리 대학생들이 서울에 가지 못하였다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에 왔다간 남조선사람들을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있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녀대학생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 평양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그는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여 3년나마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남조선의 한 목사가 우리를 찾아 평양에 왔다갔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은 그도 저들의 승인없이 북에 갔다왔다고 하면서 체포하였다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남조선사람들을 북에 들여놓지 않는다느니, 북의 법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악선전을 하고있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유엔사무총장일행과 하신 담화는 외세가 조선의 통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못하게 경종을 울리시는 동시에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의의있는 가르치심이였다.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대표단을 만나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해인 1994년에도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주체83(1994)년 4월 1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 뻬드로 마르골레스 빌랴누에바일행을 만나주시였다.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는 꾸바혁명이 승리한 1959년에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부르죠아어용통신들의 허위보도선전에 맞서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창설된 때로부터 수십여년동안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보도기관이였다.

빌랴누에바사장과 그일행은 당시의 복잡다단한 세계정치환경속에서 세계정치의 원로로 칭송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고 여러 국제문제들에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불원천리 대양과 대륙을 넘어 평양으로 찾아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하는 그들의 뇌리에는 7년전 평양을 방문한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을 만나주시고 그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주신 그이의 가르치심이 어제이런듯 생생히 떠올랐다.

주체76(1987)년 2월 평양을 방문한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을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때 통신사 사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제, 남조선의 내부정치정세에 대한 평가, 남조선을 민주화하기 위한 방도, 공화국정부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은 문제,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조류가 강화되고있는 문제, 쁠럭불가담운동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 조선과 꾸바 두나라사이의 관계발전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그이께 물음을 제기하였었다.

통신사 사장은 국제국내문제들에 대한 천리혜안의 예지와 통찰력, 해박한 지식을 지니시고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이분이시야말로 인류지성의 최고높이에 도달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하기에 사장이 꾸바에 돌아간 후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는 위대한 수령님과의 회견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그것은 당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으며 그들은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마중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장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나서 당신이 나의 생일을 축하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며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해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사장은 주석님께서 지난 시기 꾸바혁명을 위하여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충심으로부터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절대로 굴종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의 책동을 세계인민들에게 폭로하고 발가놓는것을 의무로 여기고 앞으로도 이 의무에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결의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로운 통신보도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바란다고 하시며 그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통일전망에 대한 사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에 의한 우리 민족의 분렬은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떻게 하나 90년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지난해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기어이 끝장내시려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가 구절구절 깃들어있는 말씀을 받아안으며 빌랴누에바사장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호응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외면하고 외세의존의 길로, 북남대결의 길로 나아가고있다고, 남조선의 현 《정권》은 철저히 외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정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하고있다고,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것은 필연적이라시며 통일세력은 반드시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강조하시였다.

신심과 락관에 넘치신 그이의 교시를 들으며 빌랴누에바사

장일행은 조선이 통일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도 제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내놓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은 조선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공정하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통일방안입니다.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은 우리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그 어떤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인 나라로 발전할것을 예견하고있는것만큼 그것은 주변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것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갈망하고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조국통일방안이 있는 이상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이외에도 사장일행이 관심하고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나서 꾸바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반구에서 사회주의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영웅적인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하고있는 꾸바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형제적우정이 담겨져있었다.

빌랴누에바사장과 그일행은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이처럼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신 **김일성**주석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조선의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 믿는다시며

해마다 4월이면 그러하였지만 1994년의 4월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칭송과 흠모심이 더없이 뜨겁게 끓어오른 나날이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기 위하여 수많은 벗들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수령님께 깊은 존경과 경모의 정을 안고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 예술계의 인사들이 천수백여건에 달하는 축전과 축하편지, 지성어린 선물과 축원의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세계 130여개 나라들에서 경축집회, 경축야회, 기념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체육경기, 경축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해의 4월 만민이 경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전직 국가 및 정부수반, 정치인들의 평양방문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

전직의 지위구성으로 보나, 표방하는 목표와 활동정형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4월의 명절을 계기로 공화국을 방문한 방문단들가운데서 제일 큰 방문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3(1994)년 4월 1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들의 손을 일일이 따뜻이 잡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전직 국가 및 정부수반, 정치인들의 평양방문단 성원들을 환영한다고 하신 다음 당신들이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자신의 생일에 즈음하여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나는 당신들의 이번 평양방문이 우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만나주시는 첫 순간부터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직 별로 한 일도 없는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부터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덕망과 넓으신 도량에 방문단성원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대표단성원들을 일별하시며 당신들가운데는 내가 이미 만나본 사람들도 있고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구면친구가 될것이고 이미 만나본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구면친구로서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게 될것이라고 정을 담아 이야기하시였다.

이날 수령님을 만나뵈온 사람들가운데는 꼬스따리까 전 대통령 까라쏘, 카나다 전 총독 에드워드 슈레이어를 비롯하여

이미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그이를 뵈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이의 말씀이 끝나자 꼬스따리까 전 대통령 까라쏘가 자신들은 평화의 사절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노력할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말씀올리였다. 이어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 집행국장 안또니오가 수령님께 방문단성원들을 한사람한사람 소개해드리였다.

그의 소개가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나는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을 통하여 친숙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나는 당신들로부터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하도록 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으며 그 제의를 대단히 훌륭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하였다고,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대로 당신들은 판문점을 통과하여 오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방문단 단장인 꼬스따리까 전 대통령 까라쏘는 먼길을 에돌아오게 된 자신들의 평양방문로정을 그려보았다.

사실 그해 3월말에 서울에서 진행된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에서 조직한 제2차 평화회의에 참가하였던 세계 여러 나라 전직대통령 및 수상, 고위정치인들은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의 현실을 더 잘 알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할 의사를 표명하였었다.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는 당시 세계평화련합 총재였던 문선명의 발기로 1987년 5월에 창립되여 워싱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직대통령, 수상 및 고위정치인들의 사회적활동조직이였다.

리사회는 자기의 활동목적을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 동원할수 있도록 국제회의장소를 마련해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당시까지 두차례의 평화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매 회의때마다 조선통일문제를 주요의제로 상정시켜 토론을 진행한 리사회는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까라쏘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으며 그해 9월에는 리사회안에 전직대통령들로 구성된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위원회》를 내왔다.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는 이미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까라쏘와 이전 뽀르뚜갈과 수단대통령들, 이전 카나다총독 등으로 무어진 대표단을 보내여왔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와있던 까라쏘를 단장으

로 하는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대표단의 체류기일이 끝나게 되였다는것을 아시고는 그들의 체류기일을 이틀 더 연장하도록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선의 통일문제와 민족대단결사상의 생활력과 정당성에 대하여, 북남대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조미관계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는 대표단의 평양방문후 《워싱톤 타임스》를 비롯한 출판보도수단들을 통하여 조선의 통일문제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고 생동하게 선전하였으며 여러 국제회의 연단들에서도 우리 나라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널리 벌리였다.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우에서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는 1994년 3월말 서울에서 40여개 나라의 전직대통령 및 수상, 고위정치인들이 참가한 제2차 평화회의를 열고 조선통일문제를 토론한데 이어 회의참가자들로 방문단을 무어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로 판문점을 통한 외국사절단의 평양방문은 실현될수 없게 되였다.

당시 남조선당국은 북남최고위급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를 동결시켰으며 북침전쟁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정세를 긴장

시켰다.

이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외국사절들의 판문점통과와 평양방문계획의 취소를 요구한것은 참으로 비렬한 행위였다.

초보적인 국제례의도 안중에 없이 외국평화사절단의 평양방문마저 방해해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은 해내외에서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왔다.

외국사절들은 서울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남측의 《불허》로 판문점을 통한 평양방문을 할수 없게 된데 대하여 발표하면서 이에 대하여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그들은 공화국에서 자기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평양을 방문할수 있게 초청해주고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것을 전하여왔으며 그로부터 며칠후 다른 나라들을 에돌아 평양으로 왔던것이다.

헐치 않았던 평양방문길을 돌이켜보는 방문단 단장의 이러한 생각을 헤아리시는듯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에 왔더라면 여러모로 좋았을것입니다. 평양과 개성사이에는 고속도도로가 훌륭히 건설되여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오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왔더라면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을것입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은 근 반세기에 걸쳐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1940년대에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나라는 1990년대에 이른 오늘까지 통일되지 못하고있다, 판문점에는 40여년전에 꽂아놓은 유엔기발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당신들이 판문점을 거쳐 왔더라면 거기에 꽂혀있는 유엔기발을 보았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마디마디 분렬의 고통과 아픔이 슴배여있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방문단성원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한 미국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자기가 돌아갈 때 판문점을 통과하여 남조선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다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어서 그렇게 하라, 당신이 판문점을 거쳐 남조선으로 나가면 정전후 판문점을 통과한 첫 미국사람으로 될것이다, 당신이 미국사람으로서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는 국토분렬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도 판문점을 통과해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신들이 평양에 올 때 판문점을 통과하여 오지 못한 조건에서 판문점에 한번 가보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꼭 판문점에 가보겠다고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당신들가운데는 우리 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자주 오는것이 좋겠다고, 우리 나라는 문을 닫아맨적이 없으며 당신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비밀이 없다고,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비밀뿐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군사비밀은 공개하지 않는것이 상례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은 우리 나라의 어느곳에나 마음대로 다니면서 보고 촬영하여도 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좋지 못한 거짓선전을 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당시 서방나라들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우리 나라에 부당한 핵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하는데 편승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허위보도를 계속하고있었다.

이번에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조선에 대한 서방나라들의 보도에 허위가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는 대표단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보도수단들이 자기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서방나라들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보도활동에서 겉으로는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당국자들의 부추김대로 하고있다고,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 우롱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요즘 서방나라 대중보도수단들은 얼마전에 진

행된 북남최고위급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때 남측대표가 우리를 걸고들기때문에 면박을 주느라고 우리측대표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호전분자》라고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고있다, 만일 우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우리 동족들이 죽겠는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는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 이미 건설해놓은것이 다 파괴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 CNN TV방송과 일본TV방송이 그 전날 저녁에 진행된 4.15명절 경축행사소식을 방영한데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자주 와서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의 립장을 널리 소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이의 말씀에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을 다정히 둘러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통일되여도 다른 나라의 위성국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주변에는 로씨야, 중국, 일본과 같은 큰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나라로 될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전에 오스트리아 수상을 하던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도 나는 그에게 앞으로 우리 나라가 통일

되면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절대로 큰 나라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을것이며 그 나라들에 리용당하지도 않을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나라로 될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에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갈채가 울리였다.

그들이 터친 박수갈채, 진정 그것은 한없이 소탈하시고 사리정연하고 공명정대하시며 인자하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매혹의 분출이였다.

성품은 권력보다 훨씬 사람들을 가깝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하는 순간이였다.

그때를 회상하여 외국의 한 인사는 후날 《주석님을 만나뵙고보니 이미 그이를 존대하여 부르고있는 존칭사이상으로 부르고싶은 욕망이 간절하다. 최상의 존칭사를 새롭게 찾아야 하겠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후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판문점을 참관하는 기회에 남조선당국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보았다. 그들은 베를린에만 장벽이 있은줄 알았는데 조선에도 장벽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촬영하여가지고 돌아갔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한나라, 한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남측지역의 콩크리트장벽의 실체는 그것이 반땅크차단물이라고 우겨대는 남조선당국의 거짓선전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 크게 여론화되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세계 여러 나라 전직 국가 및 정부수반, 고위정치인들에 의하여 민족분렬의 상징인 콩트리트장벽의 정체는 더욱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전직대통령, 정부수반, 고위정치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소식은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였다.

그 자리에 참가하였던 한 미국인사는 《북조선은 그동안 미국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외곡보도되여왔다.》며 《최근의 특집보도는 북조선에 대한 미국인들의 리해를 넓힐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진행하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는 더 많아지고 공화국을 지지성원하는 목소리는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더 높이 울려나오게 되였다.

민족의 숙망이자 나의 숙망이라시며

주체83(1994)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으로 구름처럼 모여드는 외국인들속에는 부주필 죠세트 샤이너와 그의 언니로 구성된 《워싱톤 타임스》기자단도 있었다.

이미 2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이 되는 주체81(1992)년 4월에도 평양을 찾아왔던 그들은 수령님을 만나뵙고 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문제, 조선전쟁시기의 미군유해송환문제, 북남대화와 조선반도의 통일의 전망과 가능성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는 80평생 인민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살아온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인민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하시며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너무도 겸허하게 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나 또다시 평양에 찾아온 샤이너와 그의 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느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샤이너일행을 위하여 4월 16일 몸소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기자단일행이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께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고맙게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신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한다고,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나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해주시였다.

샤이너단장은 2년전 주석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셨을 때 세계는 조선반도의 정세가 평화적으로 완화될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평화적통일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후 정세가 악화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가에 대해 질문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이 우리와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고나오면서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으며 국제기구들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당국자들도 미국의 핵소동에 추종하여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결렬시키고 북남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고, 이런데로부터 조선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여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서간의 랭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도 힘으로 남을 위협하는것은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고있으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시 미국은 그 전해인 1993년의 조미회담에서 무력사용과 무력위협을 하지 않으며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을 끌어들이는것을 비롯하여 무력을 증강하여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었으며 남조선당국은 《핵사찰》을 코에 걸고 8차까지 진행되여온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까지 파탄시키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설하여놓은 창조물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다고,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다 리롭지 못하다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입게 될것이라고, 우리 공화국정부는 일관하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바라며 조국통일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려든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하여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 압력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압살해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태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있으며 그 어떤 침해로부터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결심과 준비가 되여있다.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침략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드놀지 않는 원칙적립장과 백두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장내에 울려퍼지며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하려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조선의 미래를 개척할수 있는 힘도 조선민족에게 있다고 하시며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이라고 명쾌하게 밝히시였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이라고 하신 고귀한 가르치심의 깊은 뜻을 새겨보고있는 샤이너일행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여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 잘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이어 조미관계문제를 평화적해결의 궤도에로 돌려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북과 남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도 합의를 보았다고,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는 지난해 5월에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실현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해결하고 통일의 방도도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도 내놓았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현안문제들과 조국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것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95년은 우리 7천만겨레가 약속한 조국통일의 시간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은

그동안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의 목표로 내세운 1995년은 이제 한해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어떻게 단합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조선민족은 그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인것만큼 모든것을 초월하여 능히 단합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내놓았습니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이겨내고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을수록 샤이너는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실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전체 조선민족을 통일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을 금할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주석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정치활동을 회고해볼 때 당신께서 구상하여오신 모든것을 수행하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구상을 실현하지 못한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나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

쳐왔다고, 우리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숙망이자 나의 숙망입니다. 우리는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이며 우리가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것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숙망이자 나의 숙망이다.

그이의 이 교시를 들으며 《워싱톤 타임스》기자단 성원들은 생각하였다.

80고령의 년세에도 오로지 자신보다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며 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자신의 숙망으로 간주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조선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라고.

CNN기자단을 만나시여

주체83(1994)년 4월 경축분위기로 들끓는 조선의 모습을 화면에 담기 위하여 미국의 CNN TV방송회사도 이쓴 죠르단 부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자단을 평양에 보내였다. CNN이 자기의 촬영기초점을 조선으로 돌리게 된것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소동에 대처한 공화국의 강한 대응을 국제사회계가 큰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서방세계에서 떠들고있는 조선에 대한 여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것이였다.

CNN TV방송회사는 당시 세계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1980년 6월 미국남부의 지방도시 애틀란타교외의 자그마한 2층짜리 건물에서 첫걸음을 뗀 CNN TV방송회사는 비교적 신속하고 객관성을 띤 시사보도를 전문함으로써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의 우주왕복선폭발사고와 1991년의 만전쟁을 실황중계한것으로 하여 CNN TV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하여 20년도 못되는 기간에 백수십개 나라에서 1억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시청하였으며 세계 600여개의 방송국들이 CNN TV의 보도를 중계하였다.

이러한 CNN TV방송회사도 서방세계에 나도는 좋지 않은 여

론에 휘말려 공화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평양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CNN TV방송회사의 기자단성원들은 서방세계에서 듣던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였다. 그들은 즉시 자기들이 촬영기렌즈에 담은 꾸밈이 없는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본사에 전송하였다.

방송은 명절분위기로 단장된 평양의 거리풍경과 수도시민들의 모습, 만수대를 찾는 사람들의 화면들을 방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은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2돐을 경축하는 모습으로 하여 뚜렷하게 온화한 분위기에 잠겨있는것으로 보이며 전쟁에로 나아가는 나라의 수도같이 보이지 않고있다.

만수대언덕에 올라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앞에 꽃다발을 증정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동원감은 찾아볼수 없다.

시내에서 우리가 촬영한 사람들의 얼굴은 편안하고 웃음에 넘쳐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최소한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발화점으로 묘사되고있다는것을 증명할만한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수 없다.

보다 명백한것은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경축행사에 외국의 방문자들이 초청되였다는것이다.

전쟁에 관한 발언들은 과장되였다.》

이들의 보도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그와 함께 CNN TV방송의 시청률도 나날이 높아졌다.

조선방문의 나날이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웠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헤아리시여 4월 17일 CNN TV방송회사 기자단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시고 이쓴 죠르단을 비롯한 기자단성원들에게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고있는 핵소동의 부당성에 대하여 천명하시고나서 공화국정부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유엔《제재》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였다.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철의 의지와 담력, 배짱을 지니시고 《핵문제》를 떠들며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서리발같은 빛이 어리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장된 정세하에서 현 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개괄적인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올리는 그들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라고,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소동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전 세계가 우려속에 주시하고있는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풀어나갈수 있는 방도를 한순간에 명백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이쓴 죠르단 부총사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과 미국사이에 지속되고있는 불미스러운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이며 현시대의 요구라고 하시며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선린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고,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관념을 버리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조선과 미국이 벗으로 될수 있다고 본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미국측에 이러한 정치적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다고 언급하시였다.

이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주석님께서는 조선이 당신의 생전에 통일되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구의 령도하에 통일되리라고 믿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리였다.

한평생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조국통일 문제였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난관과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온 민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을 갈망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운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거족적인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은 누구의 령도하에 실현된다기보다 민족공동의 지향과 노력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이 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이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습니다. 온 민족이 통일을 바라고 통일력량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있는 이상 우리 나라의 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입니다.》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통일의 앞길에 난관과 장애가 많지만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하고있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기자단성원들은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고야말것이라는 기대를 간직하게 되였다.

CNN TV방송은 이날의 회견에 대하여 《**김일성**주석님은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시였다. 82살의 고령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도 피곤해하시는 기색도 없이 3시간동안이나 말씀하시였다. 매우 건강하신 모습이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의 비결은 락관주의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CNN TV보도는 전 세계에로 급속히 전파되였으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남조선의 《경향신문》 1994년 4월 21일부는 《**김일성**주석님의 미국TV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워싱톤특파원의 기사를 실었다.

《세계최대의 유선TV보도통로인 미국 CNN은 요즘 련일 북에 대한 특집방송을 내보내고있다.

미국내에서 평균 20%의 시청률을 확보하고있는 CNN은 30분마다 방영되는 정규보도와 특집프로그람 등을 통해 북의 최근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있다.

미국내의 CNN시청자들은 82돐생일을 맞으시는 **김일성**주석님과의 회견내용과 북의 거리모습 등을 현지에서 위성으로 보낸 생생한 화면을 통해 접하고있다.

…》

조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면서 CNN TV방송회사의 기자단 단장인 부총사장 이쓴 죠르단은 귀중한 시간을 내여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여러 시간에 걸치는 담화를 하시면서 질문들마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올리였다.

《CNN의 이름으로 저는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청하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주석각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력사적인 우리들의 방문에서 절정을 이룬 사변은 지난 4월 17일 주석각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신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려행을 시작하면서 CNN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것이라는것을 주석각하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공약을 수행하였다는것을 당신께 말씀드리는바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들의 보도가 귀국에 대한 국제적리해를 도모하며 세계평화위업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CN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장기적이며 긍정적인, 호상 유익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태발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평양에 올 준비가 되여있으며 귀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긍정적인 고려를 돌려줄것을 희망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와의 담화

1990년대에 정치인, 종교인을 비롯한 미국의 많은 인사들이 평양에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조미관계개선에 나설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러한 흐름속에 1994년 6월 미국의 전직대통령이였던 지미 카터가 공화국에 찾아왔다.

명분상 일개 국민의 신분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카터는 범상한 대상으로 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상 미합중국 대통령특사의 자격을 지니고있었으며 《초대국》대통령경험자의 눈으로 모든것을 발아래로 굽어보는데 습관된 도고한 사람이였다.

당시 그는 민주당의 원로로서 정계에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거물이였다. 더우기 그에게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들도 미국의 구미에 맞게 능숙히 처리할줄 아는 남다른 특기가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실권을 내놓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미국의 대외정책작성과 그 실현에 깊숙이 관여해오고있는 카터였다.

하다면 카터는 어떻게 되여 평양길에 나서게 되였는가.

그럴만한 동기가 있었다.

1993년 3월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로 백악관이 사색이 되였을 때 그가 카터쎈터에서 대통령의 대조선정책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훈시한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북조선을 방문하여 호상 존중하면서 타협한다면 전쟁위기는 피할수 있다.》

일촉즉발의 정세가 그후 조미사이의 정부급공식회담이 진행되고 그해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일단 완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의 훈시는 뒤전에 밀려나게 되였다.

그런데 1994년에 들어서면서 조미관계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생트집으로 하여 또다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어용기구로 전락되여 공정성을 상실한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정찰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공화국의 2개 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집요하게 강요하면서 6월 10일 공화국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다음날 미국은 조미회담 3단계재개계획을 철회하는 동시에 유엔《제재》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분주탕을 피웠다.

이것은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이였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6월 14일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던 2명의 사찰인원의 추방을 선포하고 감시기재들의 전원을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인정할것이라는 강경립장을 표명하였다.

거듭되는 공화국의 강경립장표명을 놓고 전전긍긍하던 미행

정부는 한해전 카터가 한 훈시를 상기하게 되였으며 전 대통령 카터를 내적인 특사로 지목하여 우리 나라와의 교섭에 나서게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위기국면을 완화의 궤도에 올려세우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카터와의 회담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 16일 금수산의사당(당시) 영접홀에서 그와 첫 상봉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친근한 어조로 당신을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번에 서울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왔는데 그 길은 우리 나라의 통일과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이 래왕하는 길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환하신 미소,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

카터는 첫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되였다.

카터의 개인보좌관이며 전 카터쎈터 국장 스펜서는 후날 《지미 카터는 평양방문후 나에게 개별적으로 자기는 **김일성**주석님에게 완전히 매혹되였으며 그이를 만나뵙는 첫 순간부터 이분이시야말로 평화애호적인분이시라는것을 느끼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 나라가 분렬된이래 판문점을 거쳐 북을 방문하고 다시 판문점을 넘어 남으로 나간 외국인으로서는 카터가 처음

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의 담화석상에서 판문점이야기가 나오자 카터는 1945년 8월 쏘련군대의 남하를 막기 위해 트루맨대통령이 미군장교에게 과업을 주어 38° 선에 금을 긋게 했는데 그 장교가 케네디와 죤슨시기 국무장관을 지낸바 있는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드리였다.

무지막지한 미군장교의 머리속에서 시작된 조선반도의 분렬이라는 가슴아픈 력사가 지속되고있으니 정말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카터가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들씌운 고통과 재난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있는지는 모를 일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시며 신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던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당신이 자기의 친구가 조선지도의 38° 선에 분계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그어놓은 그 분계선때문에 조선의 분렬이 오늘까지 지속되여오고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38° 선에 분계선을 그은 장본인의 친구로서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을 갈라놓고있는 분계선을 없애기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리강토를 두동강 낸 장본인의 친구로서 분계선을 없애기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할것이라는 그이의 교시에 카터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어 미국정부의 립장을 대변한 그의 발언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지금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미 두 나라사이에 서로 믿음이 없는데로부터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다고 본다고, 나는 당신과의 이번 상봉이 조미 두 나라사이에 서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 두 나라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조미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해결될것이고 조선과 미국이 제도상차이는 있지만 관계를 좋게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사리정연한 그이의 말씀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한 카터는 조선과 3단계 조미회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원 2명을 조선에 그냥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의 제의를 받아들이시여 그들을 우리 나라에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다고 하시였다.

담대한 배짱, 넓은 도량과 포옹력, 놀라운 신축성과 유연성으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를 순간에 완화의 궤도에 올려세우시는 그이의 비범한 천품과 협상력에 카터와 그일행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다음날 오전 수령님께서는 카터일행과 함께 유람선을 타시고 서해갑문으로 향하시였다.

배가 부두가를 떠나자 수령님께서는 유람선의 웃층에 카터와 나란히 앉으시여 풍치수려한 대동강호안을 부감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연하고 밝은 빛갈의 제낀옷을 입으시였다.

그이께서 그해 4월에 82돐 탄생일을 맞으시였지만 매우 건강하시고 정력에 넘쳐 사업하고계심을 카터는 느끼였다.

이날 카터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가 중계자로 나설 의향을 표시하였다.

카터는 자신이 여기로 오는 길에 김영삼을 잠간 만나 **김일성**주석님께 전해드릴 메쎄지가 없는가고 물으니 자기가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기를 희망한다는것,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만나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적이 없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않겠다, 우리가 핵무기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왜 그따위 허튼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고 우리를 찾아 평양에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만나줄것이다라고 언명하시였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터와의 담화석상에서 북남관계와 관련하여 내리신 중대결단이였다.

민족의 숙원을 하루빨리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의지와 과거여하를 불문에 붙이고 전제조건없이 마주앉아 민족의 운명문제를 론하시려는 한없는 아량에 의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의 길이 열리게 되였던 것이다.

본질적문제들에 대한 대화가 끝난 다음 카터는 조미사이의 일련의 난문제들을 평화적으로, 선의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러면서 카터는 이번에는 조미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을 방문했지만 다음에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오겠다고 하면서 바쁘신 주석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온갖 편의를 최상으로 보장해주시였으며 서해갑문참관까지 동행해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하였다.

후날 카터의 책임보좌관 크리크모어는 《이번 카터의 귀국방문은 성공적이다. 카터는 매우 만족해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장시간 유람하면서 회담하신것은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특대우라는것을 카터자신도 잘 알고있다. 카터와 우리모두는 **김일성**주석님과 카터사이의 상봉과 회담에서 원칙적인 문제들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본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김일성**주석님과 카터사이에 이루어진 친선관계와 신뢰가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로 확대되는것이 중

요하다. 카터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한 카터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자기들에게 돌려주신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조선을 방문하여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명성에 기인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6월 19일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터와 그일행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을 상단에 크게 모시고 《카터 **김일성**주석님께 존경을 표시》라는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을 전 대통령 카터는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정력과 예지에 넘쳐계신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기술적인 문제들과 나라가 취하고있는 결정들에 대해 파악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카터는 북조선방문을 마치고 서울에서 자신이 간직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였으며 동시에 미행정부의 《제재》노력은 무의미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나라 신문 《워싱톤 포스트》 19일부도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매우 정력적이고 현명한분이시며 모든 문제들에 정통하시고 담화도중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차 파악하시였다고 하면서 북조선령도자에 대해 존경과

감탄을 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일 미국의 한 방송은 카터는 평양을 반대하는 《제재》는 북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으로 될것이며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사실상 북조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카터는 평양방문후 《**김일성**주석님은 어떤분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탁월한 예지와 판단력을 소유하고있으며 과학적인 통찰력과 확고한 신심에 넘친 결단성을 지닌 희세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의 대표자들이였던 3대 대통령 즉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을 합친 종합체보다 더 위대한 명인이시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들도 **김일성**주석님과 견줄만한 위인은 없을것이다.

워싱톤, 제퍼슨, 링컨대통령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합쳐도 **김일성**주석님의 곁에는 못간다고 생각한다.》

그가 지적한 대통령들은 미국인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이다.

이 세 대통령들의 생애와 《공적》은 서로 달라도 미국의 건국과 운명에 흔적을 남긴것으로 하여 오늘도 미국의 자랑으로 여겨지고있다.

그런데 자존심이 도고하기로 유명한 카터가 그 신성불가

침의 군상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정중히 떠받들어올린것이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천출위인상에 대한 그의 매혹의 발현이고 그이의 남다른 친화력에서 받은 충격의 토로이며 그이에 대한 두터운 신뢰의 표시였다.

카터가 수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였는가 하는것은 그이께서 서거하신 후의 그의 언행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놀라운

카터의 탄복

1994년 6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흰 물갈기를 날리며 대동강하류를 따라 경쾌히 내달리는 유람선우에서 카터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유람선이 도시를 벗어나 어느 한 곳을 지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한 수원을 부르시여 배의 속도를 늦추라고 하시였다.

조선말을 모르는 카터는 갑자기 배의 속도가 떨어지는것이 이상하여 수령님께 사유를 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키시며 저길 보라, 지금 근로자들이 강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물결을 세차게 일구어주면 방해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저들에게 방해를 주지 말자고 말씀하시였다.

카터는 감탄어린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자기로서는 생각도 못했고 또 생각할수도 없었던 일을 눈앞의 현실로 본것이였다.

그날에 받은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카터는 귀국후에 《과시 듣던바 그대로 **김일성**주석님은 인민의 리익과 기호를 기준삼아 걸음걸음을 옮기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비보에 접한 그는 즉시 만사를 뒤로 미루고 수령님의 령전에 직접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공화국입국부터 신청하였으며 외국인조객을 받지 않는다는 장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의 결심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담은 조문성명을 발표하였던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절세의 위인상으로 하여 진보적인민들속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최고위층속에서까지도 세계정치의 원로, 희세의 위인으로 칭송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터와의 회담을 통하여 조미간의 긴장한 대결을 완화시키고 북남사이에 최고위급회담의 길을 열어놓으신 소식은 세계적범위에서 말그대로 해일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삼천리강토를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의 하루하루를 바쁜 나날속에 보내시였다.

특히 이해의 6월은 그이께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으시고 80고령의 몸으로 너무도 무리하게 사업하신것으로 하여 정신육체적으로 극도의 과로가 겹쌓인 달이였다.

그때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여든을 넘기신 그이께서 얼마나 큰 정신육체적부담을 강인한 의지로 이겨내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고계시는지 다는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월에 꾸바녀성법률가, 미국《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기금》 상급연구사, 미국 전 대통령, 일본 전 수상의 부인일행, 타이왕국 국회상원대표단, 방글라데슈민족사회당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우리 나라를 찾아온 외국손님들을 수많이 만나주시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려고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6월의 마지막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뤼도 마르텐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뤼도 마르텐스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화국을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웠던 사람이였다.

마르텐스가 우리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것은 1990년 6월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여 동유럽사회주의붕괴로 갈길을 몰라 방황하던 그에게 벨지끄로동당이 나아갈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공화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마르텐스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벨지끄로동당을 자주적인 당으로 튼튼히 꾸려나가면서 조선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1994년 2월 빠리에서 진행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위원회에도 벨지끄로동당은 자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련방제방식에 의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 나날속에 마르텐스는 조선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조선의 현실을 너무나 외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하여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외곡선전의 반동성과 허황성을 세계의 면전에서 발가놓고 서방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어야겠다고 자기의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촬영단을 무어가지고 조선방문의 길에 오른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랜 전우를 만나신듯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이번에 네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두 당이 단결하여 긴밀히 협조하면서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여주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표단일행을 둘러보시며 조선을 소개하는 영화를 찍으려고 우리 나라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르텐스에게 우리 나라의 형편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적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곤난을 겪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잘되여나가고있다고, 나는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에 당신이 우리를 지지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있고 우리의 당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정형을 유럽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하여 영화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마르텐스는 아직까지 별로 한 일도 없는 자신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를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세상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없으며 발전된 나라와 발전되지 못한 나라는 있지만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다고, 미국사람들이 지금 우리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하여 업수이 여기고있는데 우리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결코 낮은 나라는 아니라고, 우리 나라는 발전도상나라이지만 절대로 남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마르텐스는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가 매우 크며 특히 공화국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고 말씀올리였다.

이에 사의를 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공화국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마르텐스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조미회담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전망에 대해 알려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당시의 조미회담진행정형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와 다시 회담을 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조미회담은 지금까지 2단계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3단계회담을 하게 된다고 하신 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에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은 7월 25일부터 평

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회담에서는 이미 북과 남이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하였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채택한것만큼 그런것을 다 실현하도록 하면 된다고, 우리는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 좋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잘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이 멀지 않아 이룩될수 있다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경제도 더 빨리 발전할수 있고 몇해사이에 부자나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세계의 한복판에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를 통일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해빛처럼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서부도이췰란드가 동부도이췰란드를 흡수통합한것과 같은 식의 통합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우리는 련방제통일을 주장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련방제는 지금 북과 남에 있는 두개 제도, 두개 정부를 그대로 두자는것이라고, 다시말하면 우리 공화국에는 우리대로 사회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조선에도 그들대로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마르텐스에게 설명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된 련방국가는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쁠럭불가담나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큰 나라들이기때문에 통일된 련방국가는 중립적인 나라로 되여

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이 중립화되면 주변나라들도 상관할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되여도 좋은 나라로 될것입니다. 북에 있는 사회주의제도도 그냥 두고 남에 있는 제도도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도와주면서 통일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라를 부강하고 자주적인 통일국가로 만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심취되여있던 마르텐스는 조선에 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방출판물들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외곡된 선전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지난 4월에 미국 CNN TV방송회사와 미국 《워싱톤 타임스》, 일본방송협회 기자들이 공화국에 왔던 사실과 그들이 돌아가서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선전했는데 그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이 굉장하였다는데 대해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카터가 우리 나라에 올 때 CNN TV방송회사 촬영가들을 데리고 왔댔다고, 그들도 많은것을 찍어가지고 갔는데 한가지 우스운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카터는 우리 나라에 올 때 남조선의 서울을 거쳐 왔다. 그때 그와 함께 온 CNN TV방송회사취재단이 서울에 들려 이리저리한것들을 많이 찍었다. 그가운데는 남조선사람들이

우리가 냅다 친다고 하면서 대피훈련을 하는 장면, 전쟁연습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 취재단은 서울에서 찍은것도 방영하고 그다음 우리 나라에서 찍은것도 방영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서 찍은것들가운데는 우리 사람들이 배놀이를 하는 장면, 배를 타고 낚시질을 하는 장면, 강가에서 수영하는 장면들도 있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평양과 서울의 형편이 판이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선전이 거꾸로 된것이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CNN TV방송회사 사람들을 매수하여 좋은것만 찍게 하고 남조선에서는 나쁜것만 찍게 하였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였다. 우리는 사실 CNN TV방송회사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며 그들의 취재활동에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았다.

한 방송사의 객관적인 보도를 놓고서도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만 헤집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에 대한 해학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웃음을 짓고있는 손님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가지 더 말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카터는 나에게 이번에 자기네 사람들이 여러명 함께 왔는데 그들이 남조선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어떻소, 무엇이 어떻소 하면서 북조선사람들을 욕만 하는데 평양에 와보니 북조선사람들은 누구도 남조선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미국사람들도

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 별나다고 말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장내에서는 또다시 가벼운 웃음이 일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르텐스와 담화를 하신 후 그와 함께 온 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여기에는 영화제작가, 촬영가, 록음사들도 참가하였다.

그이께서는 손님들에게 음식도 몸소 권하시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날 그이의 소탈하신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손님들은 어려움도 잊고 조선방문인상이며 촬영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 일들에 대하여 겨끔내기로 말씀올리였다.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이날 오찬회에는 한 해외동포녀성도 참가하였는데 그로 말하면 벨지끄사람의 양딸로 살고있는 동포녀성이였다.

그는 공화국을 소개하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대표단과 함께 동행하였던것이다.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고매한 인품에 매혹된 그 녀성은 두살때 남조선에서 벨지끄에 갔기때문에 조선말을 전혀 모르는것이 유감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북에 와서 말로써는 다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받았고 특히 조선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진정에 넘쳐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선사람인 당신을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며 그전에 알제리를 방문하였을 때 남조선에서 팔려간 고아를 만난 일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그때 그 고아처녀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알제리를 방문하고있다는것을 알고 자기를 키우는 프랑스녀성에게 주석님께서 오시였는데 조선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가보지 않겠는가, 주석님을 만나뵈우러 가도록 해달라고 울면서 간청하였다. 하여 그 프랑스녀성은 그애를 데리고 공화국대사관에 찾아오게 되였던것이다.

한 해외동포녀성을 보시고도 민족의 분렬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과 어린이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손님들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작별인사를 올리는 대표단성원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조선을 소개하는 영화를 찍으러 온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나라에 자주 오기를 바란다고, 당신들과 오늘은 초면친구이지만 두번째로 만나면 벌써 구면친구로 된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오면 인터뷰에도 응하여줄수 있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여 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제 4 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려운형선생의 자녀들을 만나주시여

인류력사에는 의리를 지켜 이름을 남긴 명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번 맺은 의리를 한생토록 잊지 않고 영생의 삶을 주시고 그 후대들의 운명까지 말아안으시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산 사람은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을 때라야 그 우정이 공고하고 진실하고 영원한것으로 될수 있다,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정은 사멸을 면치 못한다, 죽은 사람을 자주 추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이 남기고 간 후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남긴 유지를 잘 지키는것이 선대들과 선렬들, 먼저 간 혁명동지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쓰시였다.

통일애국의 길에서 싸우다 쓰러진 렬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수십년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후대들에게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이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하시며 육친의 정

으로 보살펴주신 통일애국렬사유자녀들가운데는 몽양 려운형의 자녀들도 있다.

려운형의 딸 려연구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있던 주체80(1991)년 11월 16일이였다.

이날 려연구를 비롯한 려운형의 자녀들은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또다시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건강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그들의 손을 한사람한사람 따뜻이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내가 동무들을 1979년 설날에 만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데 나는 동무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합니다. 동무들도 나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친의 정이 차넘치는 그이의 이 말씀을 받아안는 려연구와 그의 형제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용솟음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몇달전부터 동무네 4형제를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시간을 내지 못하였다고, 어제 저녁에 한 일군에게 려연구가 언제 서울로 나가는가고 물어보니 25일경에 나간다고 하기에 오늘 동무들을 오라고 하였다고 다심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

신 그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는 그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연구와 려원구는 1946년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때는 동무들의 아버지가 희생되기 전이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가족관계와 생활형편에 대하여 자상히 알아보시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네 형제가 모두 9명이였는데 더러는 해방전에 일제놈들때문에 죽고 또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자들때문에 잘못되여 지금은 나를 찾아온 4형제뿐이라고 하는데 동무네 가정이 일제놈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동무네 형제들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다고, 동무들이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았다고 하는데 려붕구는 꼭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볼 때마다 려운형선생의 생각이 더 납니다. 내가 려운형선생을 처음 만난것은 해방직후였습니다. 그때 그는 환갑나이였지만 정열도 있고 패기도 있었습니다.》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따랐던 통일애국인사들중의 한사람이였다. 려운형이 자기의 호를 몽양이라고 단것도 꿈속에서라도 태양의 빛을 따르려는 그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일찌기 청년시절에 독립의 뜻을 품고 3.1인민봉기에 참가하여 만세도 불렀고 동방민족의 자결권을 위한 국제회의장에 달려가서 약소민족의 설음도 하소했으며 민족주의에 뜻을 두고 상해림시정부수립에도 참여하였는가 하면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나 민족자결문제를 두고 의논도 하였던 그였다.

해방후 그는 남조선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으로 되였으며 조선인민당 당수,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 좌우합작위원회 주석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그가 해방후 남조선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알고저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던것은 1946년 2월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려운형을 만나시여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하나하나 명쾌한 해답을 주시면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서야 해방된 조국이 나아갈 길을 찾은것은 물론 인생의 항로를 새롭게 정하게 되였으며 자신의 운명은 물론 온 가족의 운명까지 그이께 의탁하게 되였다.

려연구와 그의 동생이 1947년에 북행길에 오르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님을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려운형의 신념에 의해서였다.

려운형은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온 때로부터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몸 다 바쳤으며 그 길우에서 반동들의 흉탄에 맞아 쓰러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셨을뿐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두고두고 회고하시며 그의 자식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수십년세월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을 되새기는 려연구의 머리속에는 10여년전 형제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던 영광의 그날이 떠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79년 새해를 앞둔 어느날 려연구는 물론 지방에서 사업하고있던 그의 동생들까지 평양으로 부르시고 새해경축연회의 초대장을 보내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몽양 려운형의 자녀들이 보고싶으시여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시지 못하시고 이번 설에는 그들을 기어이 자신의 곁에 앉히고 명절을 쇠시려고 그들이 다 기차를 타고 떠났는가, 평양에 도착하였는가, 다들 건강한가를 몇번이나 물으시였다. 려연구와 그의 동생들이 그 구체적인 사연에 대해서 알게 된것은 그후의 일이였다.

이렇듯 그이의 따뜻한 사랑속에 평양에 도착하여 한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그들은 1월 1일 아침 8시 40분경 한 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를 하시기 전에 자기들을 몸가까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들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방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너희들이 왔구나!》 하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오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두팔을 벌리시며 그들에게로 마주 오시는것이였다.

얼마나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이신가. 그들형제는 순간 목이 꽉 메여 그 자리에 꿇어앉아 삼가 세배를 올리였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설념도 못하고 흐느껴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일으켜세워주시고는 감격에 흐느껴우는 그들모두를 자애로운 한품에 꼭 껴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냥 흐느끼는 그들에게 그만 그치라고 하시며 왜 인제야 왔느냐, 왜 편지도 안하고 집에도 놀러 오지 않았느냐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간 그들의 지나온 생활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이어 그들의 나이며 식구수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형제들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이

제는 함께 모여서 살도록 하자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순간 시계의 초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를 하실 력사의 시각을 넘어서고있었지만 그이께서는 시간이 흐르는것도 잊으신듯 설날에 너희들을 만났는데 기념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며 그들을 량옆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사진기앞에 나란히 선 순간 그들은 또다시 오열을 터뜨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울면 사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수 있다고, 웃으면서 명랑하게 사진을 찍자고 그들을 달래시였으나 그이의 음성도 몹시 갈리시였다. 그날의 사진이 밝은 웃음이나 행복한 표정을 초월하여 한없는 사랑과 감사의 격정으로 융합된 숭엄한 화폭으로 아로새겨진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그후 려운형의 자녀들이 한데 모여살수 있도록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직업문제까지 일일이 관심을 돌려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려연구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으로, 국제의회동맹 제72차 총회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대표단 단장으로 내세워주시면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은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친어버이사랑으로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는 사랑과 믿음, 의리

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한 행운아들이 이 세상 이 하늘아래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10여년이 지나 그들형제들을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곧 서울에 나가게 된 려연구에게 서울에 나가면 아버지묘소에 가보아야 하겠다고, 려운형선생의 묘가 서울 우이동에 있다고 한다고, 내가 려운형선생의 묘에 나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려고 한다고, 화환댕기에는 내 이름과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라고 쓰려고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려운형의 맏딸 려연구는 1991년 11월 25일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넘어서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화환을 가지고 아버지 몽양 려운형의 묘소를 찾게 되였다.

려연구는 품속에서 붉은 댕기를 꺼내여 화환에 정중히 드리워놓았다. 그 댕기에는 《고 몽양 려운형선생을 추모하여 **김일성**》이란 금빛글자가 씌여져있었다. 고인의 친척들은 물론 주위사람들이 받아안은 놀라움과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려운형의 묘앞에서 려연구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반동들의 테로에 희생된 후에도 령전에 달려올수 없었던 이 딸이 40여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아버지의 묘소에 섰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참된 뜻이 있어 우리의 **김일성**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를 민족의 영웅으로, 스승으로 모시였고 그 길에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기에 영생하고계신다는 참으로 감동적인 추모사를 랑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화환과 려연구의 말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려운형선생과 그 후대들이 안긴 위대한 품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하기에 그날 남조선의 려운형추모회 회장은 《묘소에 따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준비를 하였지만 이렇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화환이, 그것도 생화가 와닿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떻게 50년가까이 정사를 보시게 되였는가 하는 의문이 단번에 풀립니다.》라고 감동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동서고금 어느 력사, 어느 시대에 이처럼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위대한 위인을 모시고있는 나라와 민족이 이 하늘아래, 이 행성우에 어디 있었던가. 정말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위대하다는 표현만으로는 그분의 위대함을 다 담을수가 없다.

그날 아버지의 묘앞에 선 려연구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기였기에 그의 아버지 려운형은 사후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겨레가 기억하는 애국렬사의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그의 귀전에는 40여년전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앞에서 한 연설이 울리고있었다. 그때 려운형은 평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감격과 흥분에 잠겨 학생들에게 《내가 평양에 가서 만나본 **김일성**장군은 당년 34살의 청년장군이시다. 내가 왜 **김일성**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따르는가. 그것은 **김일성**장군이 백두산이 낳은 조선의 명장이시고 일제놈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투쟁을 벌려 조국을 해방한 민족의 영웅이시기때문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 의병이나 독립군이 있었지만 **김일성**장군이 거느린 군대처럼 무장투쟁으로 왜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해방한 그런 군대가 어디 있었는가. 진수성찬을 차려 장군님께 대접하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겠는데 우리 3천만백성들이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있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성세대가 못다한 일을 당신들, 청년들이 맡아해달라.》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려연구의 가슴속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 한생을 빛내일 굳은

결의가 불타고있었다.

이렇듯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이 있어 려운형의 후대들은 통일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수 있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렬사라시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의 길에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손길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이였던 최덕신의 미망인인 류미영에게도 뜨겁게 미치였다.

강산에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난 주체81(1992)년 4월 21일이였다.

이날은 나라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날 항일의 녀투사들과 함께 류미영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류미영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오찬도 마련해주시였다.

오찬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미영에게 영화 《민족과 운명》을 보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얼마전에 그

영화를 보았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생의 마무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조국과 민족앞에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의 마무리를 잘하면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덕신선생이 그런 사람들가운데 한사람입니다. 최덕신선생은 지난날 우리와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지만 생의 말년에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통일운동대오에 서서 겨레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렬사로서 영생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최근에 만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부-4부는 최덕신선생을 원형으로 하여 만든것입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렬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과분한 믿음과 치하의 말씀에 류미영은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남편 최덕신으로 말하면 해방전에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개석국민당군 독립대대장으로 복무하였고 해방후 서울로 가서는 남조선군에 입대하여 미륙군보병학교에 류학하였으며 전쟁시기에는 남조선군 사단장, 군단장, 정전담판《국군대표》로, 전후에는 군단장, 외무부 장관, 서도이췰란드주재 남조선대사로 있으면서 민족앞에 죄많은 과거를 안고있던 사람이였다.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완성된 다부작예술영화 《민

족과 운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곡절많은 최덕신의 극적인 인생전환은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몸바치겠다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어제날의 반공분자나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다 너그럽게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포옹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진것이였다.

그날 영광의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값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류미영은 남편 최덕신과 함께 수령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무수히 흘러보낸 행복한 나날들을 추억속에 그려보았다.

류미영이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는 주체71(1982)년이였다.

그해 5월 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를 몸소 만나주시고 친히 오찬까지 베풀어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수 음식을 권하시면서 우리가 체험한데 의하면 우리 인민은 민족성이 매우 강하다고, 조선사람은 민족성이 강하기때문에 누구나 다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함께 손잡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과거의 잘못을 묻기에 앞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최덕신과 같은 사람도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포옹력과 도량을 느낄수 있게 하는 말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때로부터 최덕신은 인생말년에 재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또다시 조국을 방문한 최덕신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에 대하여 심려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과 부인은 조국에 와서 사는것이 안전할것같다고 하시면서 곁에서 살펴줄 자식들도 없는데 조국에 와서 사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허나 그는 조국앞에 너무도 죄지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해놓은 일 없는 자식이기에 어머니조국에 영주하고싶다는 절절한 희망을 선뜻 표현할수가 없었다.

흥분과 감격속에 잠겨있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만나지 못하다가 늙어서 이렇게 만난 이상에는 선생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같이 손잡고 애국투쟁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며 나와 선생은 뜻이 같기때문에 손잡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끝까지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죽을 권리가 없다고,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면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우리 세대에 통일하려면 민족의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우리는 선생과 같은분들과 힘을 합쳐 조국의 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려고

생각하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최덕신은 너무도 과분한 믿음을 받아안고 이미전부터 해오던 생각을 그대로 그이께 말씀드렸다.

《주석님, 한가지 소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석님과 뜻을 같이하는 전사가 되고싶습니다. 이 사람을 존대하여 선생이라 부르지 마시고 동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쁜 표정을 지으시며 아, 그렇습니까, 뜻을 같이하는 동무, 그렇게 부릅시다, 최덕신동무, 우리 함께 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길에서 생사를 같이합시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최덕신동무!》

그것은 최덕신이 공화국에 영주를 선포하면서 받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고귀한 호칭, 값높은 믿음의 호칭이였으며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가 조국에 와서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돌봐주시였으며 명절이면 잊지 않고 갖가지 빛다른 식료품을 골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살뜰한 보살피심속에서 최덕신은 고령의 몸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일하면서 꿋꿋이 통일위업에 매진할수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찾은 진정한 애국의 길을 줄달음치고싶은 그

의 뜻에 야속하게도 육체가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다.

주체78(1989)년 11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병상태가 위중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병원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종을 앞둔 최덕신의 손을 꼭 잡으시고 민족의 륭성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던 동무가 어떻게 되여 이런 중병을 앓게 되였는가고 하시면서 그의 침상곁에서 떠나실줄 모르시였다.

의식이 없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을 금치 못해하시며 최덕신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고는 병원일군들에게 해외에 있는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생명을 연장해야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는것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최덕신은 이처럼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잃은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친히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가 사망한지 이틀째 되는 날에는 몸소 령구가 안치된 곳에 나오시였다. 그러시고는 유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하시고나서 최덕신위원장이 자신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갔다고, 앞으로 그가 10년은 자신의 사랑을 받았어야 할것을

그랬다고, 아까운 사람이 갔다고 애석해하시며 슬픔을 참을 수 없으시여 손수건을 꺼내 눈가로 가져가시였다.

유가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그가 그 사랑, 그 믿음에 천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하고 간것이 더욱 애통하여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였으며 그의 유해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다.

죄많은 과거와 결별하고 늦게나마 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선

애국렬사릉

애국렬사릉은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렬사들의 위훈과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빛내이기 위하여 세운 대기념비이다.

애국렬사릉은 주체75(1986)년 9월 17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미동에 세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귀한 은정을 그대로 구현하시여 친히 애국렬사릉을 건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을 내세우시고 그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 애국렬사릉은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애국렬사릉에는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렬사들과 당 및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등 여러 부문의 공로있는 일군들의 유해가 안치되여있다.

최덕신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정녕 대해같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다.

뜻깊은 오찬회장에서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류미영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편이 인생말년에 택한 길을 따라 앞으로도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리라고 믿는다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류미영은 남편 최덕신의 뒤를 이어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할수 있었다.

오로지 통일이라는 민족적대의를 앞에 놓으시고 애국을 지향하는 사람들모두를 뜨겁게 안아주고 삶을 빛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과 믿음은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폭과 깊이, 뜨거운 열도를 가진것이였다.

문익환목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민족이 기억하는 통일애국렬사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문익환목사도 있다.

주체83(1994)년의 새해 첫아침 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한데 뭉쳐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아안고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던 때에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익환목사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여온 민주인사로서 1989년에는 민주단체들의 통일전선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전민련) 고문으로 되여 활약한 재야정치계의 원로였으며 통일운동에 한몸바칠 결심을 품고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실현에 헌신한 통일애국인사였다.

그러던 그가 1994년 1월 18일 7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목사와

만나던 때를 회고하시면서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나는 문익환목사가 뜻하지 않은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명망있는 통일애국인사 문익환목사를 잃은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됩니다.

문익환목사는 생전에 념원하여온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 별세하였지만 그가 통일애국의 길에 남긴 업적은 해내외동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되여있을것입니다.》

자자구구에 고인을 잃은 애석함과 문목사에 대한 신뢰의 정이 절절히 어려있는 조전은 온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으며 통일애국인사로 삶을 빛내인 문익환목사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하였다.

문익환목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78(1989)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련방제통일방도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정치협상회의 소집방안을 지지환영하여 그해 3월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의 한생에서 가장 의의깊은 사변은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무상의 영광을 지닌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목사일행의 평양방문을 애국애족의 장거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를 통일의 사절로 뜨겁게 맞이하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3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문익환목사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를 넓으신 한품에 뜨겁게 안아주시고나서 문선생이 이렇게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선생이 평양방문의 용단을 내린것은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문익환목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된 환희와 감격에 휩싸여 정중히 인사를 올리면서 목메인 소리로 《존경하는 주석님께서 저를 초청해주셔서 이렇게 만나뵈오러 왔습니다. 주석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옵고보니 대단히 기쁩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담화장소에 이르시여서는 친히 자리를 권하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외국사람들하고 담화하는 식으로 멀리 앉지 말고 여기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걸상을 가까이에 갖다놓도록 하신 다음 그를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시종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문목사는 자신이 북간도에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

일혁명투쟁을 전개하시던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하면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자신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사하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며 문목사 어머니의 안부를 다정히 물으시였다. 어머니가 1995년에 100살이 된다는 문목사의 이야기를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선생의 자친께서 100살이 되기 전에 통일합시다라고 하시면서 선생이 민주이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다라고 하였는데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문선생이 주장한 민주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다라는 리념에 100% 찬성입니다라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토록 분에 넘치는 치하와 고무의 말씀에 문목사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되뇌이며 솟구치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문익환목사는 흥분된 심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위대한 수령님께 반파쑈민주화투쟁, 반외세민족자주투쟁, 민주통일투쟁 이 세가지가 하나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남쪽의 운동론으로 정립되였고 그것이 운동의 방향이며 전민련의 강령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파쑈반독재민주화, 반외세반침략자주화 그리고 평화적통일 이 셋이 하나이라고,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있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선은 력사도 하나이고 민족도 단일민족이며 문자와 언어도 같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거의 50년이 되였는데 이제 앞으로 50년만 더 지나가게 되면 서로 말이 달라져 알아듣지 못하게 되며 풍습도 달라지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두개 민족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인데 무엇때문에 두개 민족으로 되게 하겠는가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신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단합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인것만큼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찾아오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오는것을 환영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통일문제에 대하여 고심도 많이 하고 제나름의 일가견도 가지고있던 문익환목사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 민족이 떨쳐나설데 대한 수령님의 통일철학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문목사일행을 위하여 친히 오찬까지 베풀어주시였다. 오찬회석상에서 문익환목사는 민족의 통일과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나서 문선

생 어머님이 100살이상 장수하실것과 문선생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자고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매혹된 문익환목사는 받아안은 행복과 영광이 꿈만 같아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문익환목사는 애국애족의 숨결이 거세차게 맥박치고 조국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며 자신이 택한 평양길이 백번도 옳은 길이였다는것을 가슴속으로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문익환목사의 숙소를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문목사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나서 이번에 문선생이 평양에 옴으로써 조선의 통일력사에 큰 파문을 일으켜놓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을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그와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련방제도 마주앉아서 협의하고 실현하자는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

하게 토론하여야 풀릴수 있다, 문선생과 이렇게 두번 만나니 벌써 동지가 되고 서로 걸리는 문제가 없는것처럼 서로 모여앉아 토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나는 조국을 통일하는 일이라면 그에 무조건 복종합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고매한 인품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한없이 매혹된 문익환목사는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완료형이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그는 평양방문의 나날에 전민련 고문의 자격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일군들과 회담을 하고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조미사이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북남불가침선언의 채택, 련방제통일실현 등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에 온 문익환목사를 두차례에 걸쳐 만나주신 소식은 여러 나라 통신과 방송, 신문들에 대서특필되여 삽시에 온 세계에 전해졌으며 세인의 한결같은 격찬을 받았다.

문익환목사가 사선을 헤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놓으신 전 민족대화의 문에 들어선 장거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

상, 련대실현에 큰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이 공화국과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운동의 기치아래 굳게 뭉쳤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그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70대고령의 문목사에게 7년의 징역형을 들씌웠으며 그를 정신육체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문익환목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 수령님께서는 그의 신상을 두고 몹시 걱정하시였으며 북남고위급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측 단장에게 문익환목사를 석방시키도록 남측에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가 석방된 후에는 어느 한 재미동포를 만나신 석상에서 그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해주시면서 문익환목사는 나와 구면친구이다, 나와 그는 서로 깊은 우정관계를 맺을것을 약속하였다, 나는 문익환목사를 존경한다, 나는 문익환목사와 헤여진 후 언제나 그가 그리웠다, 문익환목사는 조국통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문익환목사만은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과분한 치하와 절대불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이처럼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문익환목사가 통일애국의 한길에서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생의 마무리를 값있게 한 정신적지주였고 자양분이였다.

출옥된 후 1991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의 단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하던 문익환목사는 뜻하지 않은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익환목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시고 평양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추도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와 관련한 여러 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추도회가 잘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1월 22일 평양에서는 고 문익환목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크게 진행되였으며 추도회참가자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길에 값높은 생을 바친 문익환목사를 잃은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사라진 고민거리

1989년 3월 27일 문익환목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였다.

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에서 큰 감명을 받아안은 문목사는 그이께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라고 질문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자본가들을 다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자본가만 반대한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바라는 자본가는 배척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해오는 립장이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전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함께 온 민족을 한품에 안으시는 넓은 포옹력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을 통일의 광장으로 불러내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정녕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믿음과 은정이 있었기에 문익환목사는 민족이 아는 통일의 선각자로, 조국통일의 상징적인 인물로 통일운동의 선봉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었으며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나라를 해방하고 조국에 개선하여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할 때 전 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고, 해방직후 내가 개선연설을 한 장소에 그 대목을 새겨놓은 비가 있는데 가보는것이 좋겠다고, 그 말은 지금도 효력을 가지고있으며 앞으로도 효력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이 끝나자 문목사는 흥분에 넘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주석님! 그렇게만 하면 민족의 대단결은 문제없습니다. 민족의 단결이 곧 조국통일의 힘입니다.

사실 나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때문에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민족자본가들과도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니 문제가 다 해결되였습니다.》

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하여야 한다

주체83(1994)년 4월 국제고통련(전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 고문으로 사업하고 있던 정일심녀성이 뜻깊은 4월의 명절을 앞두고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로 말하면 이전 쏘련에서 살다가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명한 조국개선연설을 접하고 조국으로 나와 건군사업에 이바지하였고 미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선두땅크를 타고 서울에 입성하여 방송국을 점령한 후 서울해방을 선포하였으며 사단장병들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다가 수원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105땅크사단 문화부사단장 안동수영웅의 부인이였다.

안동수영웅이 희생된 때로부터 수십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언제나 그에 대하여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유가족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기념일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안동수영웅의 부인인 정일심녀성과 그의 자녀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였다.

4월 11일 이날도 언제나와 같이 해빛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오찬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정일심동무가족일행을 다시 만나니

매우 기쁘다고 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일심동무가족일행을 만나니 안동수동무 생각이 난다고 하시며 안동수동무는 해방직후 쏘련에서 나온 우리 사람들가운데서 조선말도 잘하고 애국주의사상도 강한 동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장에서 쓰러진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 안해의 기억속에서도 그 모습이 삭막해지는 남편의 표상을 방불히 그려내시는 이 말씀을 받아안으며 정일심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흘러보낸 지나간 나날들을 깊은 추억속에 돌이켜보았다.

5년전인 주체78(1989)년 9월 정일심녀성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편 안동수에 대한 감회깊은 회고의 말씀을 해주시며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갔다고, 그가 좀더 살아있었으면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것이라고, 안동수동무는 31살밖에 살지 못하였지만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빛나는 한생을 바친 훌륭한 공산주의자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이국땅에까지 흘러간 안동수가 조국을 해방하고 개선하신 장군님께서 새 조국건설에 누구나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으로 찾아온것은 조선청년으로서 너무나도 응당한 소행이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를 여러 차례 만나주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그의 애국열의를 믿으시고 평양학원 교원, 조선인민군신문사 책임주필, 105땅크사단 문화부사단장의 중책까지 맡겨주시며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그가 전사한 다음에는 공화국영웅으로 온 민족앞에 내세워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일심녀성에게 그의 남편에 대하여 회고해주시면서 안동수는 조국애가 높고 조선을 위하여 한몫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강한 사람이였다고, 그는 자기 수령을 받들줄 알았으며 언제나 군인들을 자기 수령과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와 값높은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해외에서 자란 평범한 한 청년을 나라의 영웅으로 키워주신 은공만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는 정일심녀성이 혼자몸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고생을 헤아리시여 거액의 보조금까지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남편의 뒤를 잇도록 자식들을 잘 키우는것은 혁명동지로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로서 마땅한 본분이고 의리이며 조선녀성의 고유한 미덕이고 풍속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전사의 안해가 남편의 넋을 지켜온 소행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정일심녀성을 처음으로 만나주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그리고 안동수동무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일편단심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의미에서 부인의 이름은 정일심으로, 묘향산에서 만났다는 뜻에서 아들이름은 안향산으로, 딸들은 조선의 꽃들인 목란과 진달래의 란자와 진자를 따서 안향란, 안향진으로 고쳐주시여 그들이 조국의 아들딸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도록 해주시였다.

정일심녀성과 그의 가족들이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돌이켜보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데 그이께서는 안동수가 땅크사단 문화부사단장을 하면서 우리 나라에 와있던 쏘련군대 기계화보병사단장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데 대하여서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잘 싸운데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안동수동무가 속한 부대가 수원 남쪽에서 처음으로 미군과 맞다들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시였다. 그때 포로된 미국병사들은 우리 군인들에게 금가락지를 내놓으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우리 군인들은 인민군대가

금가락지 같은 금붙이나 좋아하는 너절한 군대인줄 아는가고 하면서 그것을 쥐던졌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사상사업을 맡아본 사단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가 훌륭하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16개국 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싸움이였다고 하시면서 사실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15개 추종국가 무력침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싸운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고, 그러나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나는 정일심동무가족이 안동수동무처럼 조국통일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기 바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라!

참으로 흉벽을 치는 가르치심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년전 그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천명하였다고, 그리고 북과 남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한다고 하여도 남조선을 공산주의화하

지 않으며 또 나라의 통일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밝혔다고, 그러나 미국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남조선을 계속 깔고앉아 군사기지로 리용하려 하고있다고,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국통일, 그것은 조선사람 그 누구에게나 그러하였지만 정일심녀성의 가족에게 있어서 남달리 강렬한 소원이고 꿈속에서도 바라고바라던 숙망이였다.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자식들이 이어나가는것은 도덕적의무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정일심일가는 통일위업실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었다. 해외에 산다고 하여 이 민족적책임이 덜어지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이러한 력사적사명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깨우쳐주시는것만 같아 자리에서 일어난 정일심녀성은 자식들의 마음까지 합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결의를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의가 좋다고 하시면서 정일심동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것만큼 자식들에 대한 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자식들을 잘 교양하여 조국통일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애국의 넋을 잊지 않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의리에 떠받들려 안동수영웅은 오늘도 민족의 기억속에 영생하고있으며 그 자녀들도 해외에서 통일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로당익장하여야 한다시며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려 그처럼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생애에는 해외동포들을 민족의 성원으로 품어안아주신 이야기도 무수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대로였다.

공화국의 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의 한덕수의장도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총련의 원로로 로당익장하며 참다운 통일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 해

외동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실 때마다 한덕수의장동지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극진히 아껴주시고 주실수 있는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예로부터 인생칠십에 고래희라고 하였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90의 인생고개에까지 오른 한덕수의장이 혈기왕성하여 총련의장의 중책을 감당할수 있은것은 이역땅 전사의 로환을 두고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신 절세위인들의 불같은 사랑과 지극한 보살피심에 의해서였다.

주체83(1994)년 6월 7일,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있던 총련의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슴아픈 때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오던 혁명동지가 병으로 고통받는것을 볼 때이고 기쁜 때는 혁명동지의 건강이 좋아진것을 볼 때입니다. 나에게는 기쁜 일이 많았지만 오늘 의장동지의 건강이 퍽 좋아진것을 보니 더없이 기쁩니다. 나는 의장동지의 건강이 좋아진것을 축하합니다.》

한 전사의 건강이 좋아진것을 보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한덕수의장은 눈굽이 젖어옴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총련의 한덕수의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은 총련결성의 그 나날로부터 그때까지 수십년세월 그의 곁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그가 몸이 불편해할 때마다 조국에 불러주시여 치료를 받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달전인 4월 28일에도 그의 숙소에 찾아가시여 그의 치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한 일도 많은데 치료를 잘 받아 다리를 꼭 고치고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의 일이 잘될수 있다고 그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이날 한덕수의장은 나날이 더해만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접할수록 그 사랑, 그 믿음에 따라서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웠고 한생토록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에 대한 추억으로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재일조선인운동은 한때 주체를 잃고 광란하는 바다우에서 키없이 떠도는 쪽배와도 같이 암담한 운명에 처하여있었다.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총련이 결성된 후 재일동포들은 일본땅에서 민족적권리를 쟁취하는 한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었다.

그 나날 한덕수의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나날이 커만 갔다.

주체64(1975)년 9월 한덕수의장은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았으며 그이의 사랑속에 공화국창건 27돐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가한데 이어 함흥과 원산을 비롯한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조국을 방문하는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이 지방참관을 마치고 평양에 올라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의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본 느낌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말그대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사회주의조국의 현실을 50여년전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현해탄을 건느던 그때의 비참한 처지와 대비하여보고 느낀 점을 말씀올리였다. 그리고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나라를 통일하는것이 민족지상의 과업이라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낀데 대하여 그이께 말씀드리였다.

한의장이 올리는 말씀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민족분렬의 아픔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조국통일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한덕수의장은 문득 지금 이 시각이 통일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시각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총련이 놀아야 할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총련이 애국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한덕수의장이 조국을 떠나게 될 때에도 그를 또다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한의장동지가 조국에 와서 많은 사람을 고무해주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그이상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사업은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내 생각에는 력사의 흐름과 시대의 추세로 보아서 통일은 꼭 된다고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 그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이분이시야말로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민족의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심을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

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성장해온 나날들을 추억속에 되새겨볼수록 한덕수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여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사의 건강을 그토록 념려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신것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에게 총련이 결성된지도 근 40년이 되다보니 결성당시부터 활동하는 총련일군들이 이제는 다 늙었다고, 총련에서는 로간부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다 로당익장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사업이 계속 잘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로당익장, 여기에는 영원히 정신적로쇠를 모르고 샘솟는 열정을 안고 값높은 삶을 빛내여야 한다는 그이의 절절한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한덕수의장은 90이 훨씬 넘는 나이까지 로당익장하며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몸다 바치였다.

대륙에도 끝이 있고 아득히 펼쳐진 대양에도 기슭이 있지만 민족성원모두를 품어안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의 품에는 정녕 끝도 기슭도 없었다.

주석님은 영원히
온 겨레와 함께

불멸의 친필－《김일성 1994. 7. 7.》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의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50년을 가까이하고있던 그해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려명을 앞둔 짙은 새벽어둠에 대조되게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창가에서는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집무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건을 한장두장 번지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그이께서 커다란 흥분을 안으시고 자자구구 따져보시며 사색의 심연속에 펼쳐가시는 문건은 다름아닌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이였다.

그해 6월에 북과 남은 7월 25일부터 27일사이에 평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력사적인 합의를 이룩하였

다. 이제 18일후이면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들이 마주앉아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상론하며 결단을 내려야 하였다.

사실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지나온 모든 년대기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향해오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수뇌들이 마주앉는것은 민족의 중대사로서 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였다. 마주앉아 걸발림소리나 하고 차나 마시며 한담이나 하는 상봉, 민족앞에 그 어떤 희망도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봉은 백번 해야 소용없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시였다.

당시의 남조선당국자는 집권하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수 없다.》고 하면서 《백두산과 제주도 그 어디에든 가리지 않고 남북정상이 만나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좋게 해석하시고 일정한 기간 그의 행동거지를 지켜보시였다. 그런데 그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고 한 자기의 말과는 정반대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집요하게 매달리였다. 그가 집권하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의 문을 두드려댄것도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을 낚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랭전종식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기화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힘에 의한 세계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사회주의보루이고 반제자주력량의 기수이며 저들의 세계지배질서수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강력한 력량인 사회주의조선을 제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바로 이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단합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시기 위해 주체82(1993)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그후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사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남측에 북남최고위급의 특사를 교환할데 대한 중요한 조치도 취하시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집권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죄를 씻을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과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외면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계속 외세의존의 길, 북남대결의 길로 나아갔다.

1990년대에 온 겨레는 분렬이 50년을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었지만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고립압살책동속에 북남사이에는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화되고있었다.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렬이냐, 우리 민족은 이 두 길중의 하나를 택하여야 했다.

바로 이러한 때 주체83(1994)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두차례에 걸쳐 만나주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담화를 하시였다.

이러한 정세기류의 급격한 변화에 급해맞은것은 남조선당국이였다. 남조선당국자는 상전으로부터 소외된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출로를 공화국과의 대화에서 찾고 평양을 찾아가는 카터에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수뇌들의 최고위급회담개최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계기가 될것을 내다보시고 남측당국자의 속심이 어떻든 그와 마주앉기로 결심하시였다.

어느덧 어둠을 밀어내며 사위가 밝아오고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시였는지 여전히 문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개최, 남측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원 100명, 취재기자 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대표단의 평양체류…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였다. 지난 시기 고위급정치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으로 남쪽에서 여러 기회에 사람들이 드나들었

지만 단꺼번에 180명씩이나 들어왔던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모두를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대해주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문건을 하나하나 검토해나가시였다.

외세가 몰아오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가시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할 방도들이 바로서있는지, 반세기동안 쌓여온 겨레의 숙원이 제대로 반영되여있는지, 오늘의 세대는 물론 후대들의 행복한 앞날까지도 담보되여있는지, 설정된 문제들에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수될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여있는지를 일일이 검토하시면서 자자구구에 담겨진 미세한 의미까지도 깊이 헤아리시여 구체적인 대안까지 밝혀넣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이제 그들과 만나시면 누구와는 어떤 문제를 론하시고 누구에게서는 어떤 문제를 알아보실것인가 등을 생각하시며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서는 벌써 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 수십년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최고위급회담을 근 50년만에 성사시키는데 이르렀으니 그것을 계기로 반세기동안이나 지속되여온 북과 남사이의 반목의 력사를 민족대단결의 력사로, 분렬의 력사를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위대한 새 민

족사를 창조해야 할것이다.

쌍방이 다같이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적립장에서 출발한다면 북과 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부합되게 능히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화해하고 단결할수 있으며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온 겨레가 념원하는 통일과 번영의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아침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과로 정해주신 아침산책시간마저 잊으시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이때 일군들이 집무실에 들어가 아침산책시간이 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깊은 사색에서 깨여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시더니 **김정일**동지가 짜준 일과이니 무조건 지켜야지만 오늘은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빨리 완성하고 **김정일**동지와 의논을 해야 하겠다고, 그러니 오늘만은 산책시간을 어겨야 할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마침내 문건을 완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도래할 조국통일대사변의 시각을 예감하시며 펜을 드시고 온 겨레의 통일지향의 무게를 담아 력사적문건에 힘주어 서명하시였다.

《김 일 성

1994. 7. 7.》

그이께서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시였다. 순간 아침해살이 쏟아져내리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명하신 문건을 밝게 비쳐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녘하늘에 통일의 려명인양 붉게 타오르는 장쾌한 아침노을을 바라보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소.》

확신과 신심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격정의 빛이 력연하였다.

통일을 결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근엄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심장은 걷잡을수 없이 고동쳤다.

《**김일성** 1994. 7. 7.》, 정녕 그것은 반세기를 가까이하는 민족분렬이 드디여 끝장나고 이제 곧 통일이 온다는 력사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런데 조국통일문건에 활달한 필체로 친필을 남기신 이 아침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맞으신 마지막아침이 될줄을 어느 누가 알았으랴.

그해 7월에 들어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하루하루 날자를 꼽아가며 크나큰 격동속에 기다리고있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언론들도 《**김일성**주석님께서 하시는 연설을 30분동안만 방송으로 생중계하면 몇달안으로 통일이 될것이다.》 《주석님께서 서울에 나오시면 500만명이상의 시민들이 연도에 떨쳐나서 환영하게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크나큰 흥분속에 맞이하고있었다.

세계의 통신, 방송, 신문들도 앞을 다투어 위대한 수령님의 용단과 탁월한 령도력에 의하여 평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널리 보도하였다.

그러나 온 겨레와 전 세계가 학수고대하던 력사의 그 순간을 앞두고 민족의 대국상을 알리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졌다.

주체83(1994)년 7월 8일 2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오열을 터뜨리고 온 나라가 그대로 추모장으로, 온 강산이 일시에 눈물의 바다로 변하고말았다.

수령님은 곧 통일이고 통일은 곧 수령님이시였는데 통일의 날을 정해놓다싶이 하시고 그이께서 가셨단 말인가. 정녕 믿을래야 믿을수 없고 그렇다고 안믿자니 부인할수 없는 현실

이였다.

한평생 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께서 통일을 눈앞에 둔 이때 가셨다는것을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고싶지 않았던 그만큼 가슴속아픔은 헤아릴수 없이 큰것이였다.

온 겨레가 민족최대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뿌리고있던 그때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문건을 보시고 1994년 7월 7일 날자와 존함을 활달한 필체로 쓰신것이 마지막 비준문건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준하여주신 귀중한 문건을 잘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준하여주신 조국통일관계문건을 민족만대에 길이 전해갈 귀중한 국보로 잘 보관할데 대한 그이의 간곡한 당부에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문제때문에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오늘 력사의 땅 판문점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친필비가 있다.

비문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관계문건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김일성** 1994. 7. 7.》이라는 글발이 그이의

필체그대로 새겨져있다.

그리고 비문판아래 목란꽃장식부분 웃단에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라는 비문이 새겨져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성업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친필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주체101(2012)년 3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의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여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응결되여있다. 그것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로고와 무한한 헌신에 대한 고귀한 증표이며 그 친필을 아로새긴 친필비는

조국통일의 길에 한생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공적비이다.

판문점의 친필비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은 오늘도 우리 겨레모두를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로 고무해주며 누리를 밝게 비치고있다.

고귀한 통일애국유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그이의 고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통일을 자신의 필생의 위업으로, 우리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 끝없는 사색과 불같은 열정을 조국통일성업에 다 바쳐 그 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신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

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해방후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분렬주의세력이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을 조작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안팎의 반통일분자들의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였을 때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립장과 의지를 밝히시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적인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에 응할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안하신분도 수령님이시였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주체55(1966)년 어느 여름날 밤 일군들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잊지 못하고있다.

나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녁동포들에게 하지 못했소. 조국통일의 인사를 겸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깊어가고있소. 조국해방이 지난날 나의 당면과업이라면 조국통일은 오늘날 나의 당면과업입니다. …

이처럼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초 격페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과 근본성격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7.4공동성명의 원칙들을 부정하고 분렬영구화를 《정책》으로 선포하는 극악무도한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

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련방제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여 분렬매국세력에게 철추를 내리시고 자주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새롭게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대단결사상을 안겨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투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희세의 애국자이시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분렬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확고한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독창적이고도 폭넓은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사는 해외동포들에게 조국방문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따뜻이 맞아주시였으며 그들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북과 남의 동포들과 굳게 뭉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주체79(1990)년 8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력사적인 회합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온 겨레의 크나큰 관심속에 대성황리에 진행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서며 영구분렬을 획책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분렬주의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확대하여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 진보적인민들과 광범위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성의있고 적극적인 평화통일제안들에 세계는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 전체 조선민

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정녕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풀어나가는것을 핵으로 하는 통일문제해결의 방략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펼치시여 통일문제를 해결할 자주의 열쇠를 안겨주시며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의 어버이로, 통일의 태양으로 온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되였으며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반드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하시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사상과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가 있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이 앞길을 밝혀주고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의 만년토대가 있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강국이 일떠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불러

필 자 김철민, 김명철, 김충성
장 정 채 대 성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4월 8일
발 행 주체111(2022)년 4월 11일

ㄱ—1531ㄷ

ISBN 978—9946—31—155—5

ISBN 978-9946-31-155-5